

정책과제 Policy challenges

Vol. 2020_09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 연구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정오현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한상현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교수

이병훈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교수

요약문

- 창원시는 제조업 경기하락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빈공장이 발생하고,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속적 도시확장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됨
-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소재 유휴공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도출하며,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함
- 창원시 유휴공간 분포와 지역별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현황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은 진전면, 구산면, 내서읍, 웅천동 등 도심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가능
 - 빈집을 활용한 문화공간(시설) 조성은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가능
 - 빈점포 및 지하보도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공간(시설)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 폐부지는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상대적으로 창원시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이 보다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화시설의 수용 범위를 분석한 결과 문화소외지역은 다음과 같음
 - 전시시설 소외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북면 등으로 나타남
 - 공연시설 소외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대신면, 북면, 동읍,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 등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복지시설 소외지역은 진동면, 북면, 대산면으로 나타남
- 문화보급전수시설 소외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북면, 대산면, 웅동1동, 웅천동, 웅동2동으로 나타남
- 도서관 소외지역은 진전면, 구산면, 동읍, 대산면, 북면 등으로 나타남
-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분석,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 창원시민 의견 분석을 종합한 결과 지역별 활용 가능 유희공간 및 시민 요구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마산지역(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은 폐교·폐부지(공장)·빈 점포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연 시설 조성이 필요함
 - 창원지역은 도심지 내 지하보도·빈점포·폐부지(공장)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시설 조성이 필요함
 - 진해지역(웅천동, 웅동1동)은 폐교, 폐부지(공장), 빈점포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조성이 필요함
- 창원시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은 문화시설 조성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희공간 활용 방향을 설정함
 - 둘째, 유희공간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활용 형태를 선정함
 - 셋째, 유희공간 인식 수준에 따른 개발 주체를 결정함
 - 넷째,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시설을 조성함
 - 다섯째,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으로 지역의 상징적 가치를 제고함
 - 여섯째,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일곱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결정하는 주민 참여성을 제고함

>>> 목 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5
3) 연구 수행 체계	6
제2장 유희공간 및 문화적 공간 개념	7
1. 유희공간의 개념	7
2. 문화공간의 개념	15
3. 국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	20
제3장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및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27
1.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27
1.1 창원시 폐교 현황	27
1.2 창원시 빈집 현황	30
1.3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가 빈점포 현황	33
1.4 창원시 지하보도 현황	35
1.5 창원시 폐부지(공장) 현황	37
1.6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분석 시사점	39

2.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40
2.1 창원시 주요 문화시설 현황.....	40
2.2 인구 100만 도시 간 문화시설 비교 분석.....	52
2.3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55
3.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74
3.1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개요.....	74
3.2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내용.....	76
3.3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결과.....	77
3.4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의 소결.....	100
제4장 국내 주요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분석.....	103
1.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의 틀.....	103
2.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 내용.....	105
2.1 폐교 활용 문화시설.....	105
2.2 폐부지(폐공장) 활용 문화시설.....	109
2.3 빈점포 활용 문화시설.....	112
2.4 지하보도 활용 문화시설.....	115
3.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 결과.....	117
제5장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	119
1. 창원시 유희공간 종합분석.....	119
1.1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119
1.2 창원시 유희공간 우선 개발 지역.....	121
1.3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수요.....	122

2.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기본방향.....	123
3.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	125
3.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희공간 활용 방향 설정.....	125
3.2 유희공간의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활용 형태 선정.....	128
3.3 유희공간 인식 수준에 따른 개발 주체 결정.....	131
3.4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시설 조성.....	133
3.5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으로 지역의 상징적 가치 제고.....	135
3.6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37
3.7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민 참여성.....	140
제6장 결론 및 제언.....	143
1. 결론.....	143
2. 정책제언.....	147
참고문헌.....	149

>>> 표 목차 <<<

〈표 2-1〉 유희공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10
〈표 2-2〉 유희공간 발생원인 및 유형	13
〈표 2-3〉 유희공간 발생원인 및 유형	14
〈표 2-4〉 현대 문화공간의 특징	17
〈표 2-5〉 도시재생의 개념	19
〈표 2-6〉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현황	20
〈표 2-7〉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21
〈표 2-8〉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22
〈표 2-9〉 문전성시 사업 추진 현황	23
〈표 2-10〉 유희 공유시설 활용 계획	24
〈표 2-11〉 신문화공간 조성 대표사례	25
〈표 2-12〉 공공 유희공간 민간활용지원 사업 유형	26
〈표 3-1〉 창원시 폐교 현황	27
〈표 3-2〉 창원시 폐교 활용 현황	28
〈표 3-3〉 창원시 빈집 현황	30
〈표 3-4〉 창원시 빈집 유형	31
〈표 3-5〉 창원시 문화시설 활용 가능한 빈집 수	31
〈표 3-6〉 창원시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활용 가능한 빈집 현황	32
〈표 3-7〉 창원시 빈점포 현황	33
〈표 3-8〉 창원시 상가지역 빈점포 현황	33
〈표 3-9〉 창원시 전통시장 빈점포 현황	34
〈표 3-10〉 창원시 지하보도 현황	35
〈표 3-11〉 창원시 지하보도 면적 현황	35
〈표 3-12〉 창원시 폐부지 및 폐공장 현황	37

〈표 3-13〉 창원시 폐부지 및 폐공장 면적 현황..... 37

〈표 3-14〉 창원시 공공도서관 현황..... 41

〈표 3-15〉 창원시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42

〈표 3-16〉 창원시 박물관 현황..... 43

〈표 3-17〉 창원시 행정구역별 박물관 운영 현황..... 44

〈표 3-18〉 창원시 미술관 현황..... 45

〈표 3-19〉 창원시 행정구역별 미술관 운영 현황..... 46

〈표 3-20〉 창원시 문예회관 현황..... 46

〈표 3-21〉 창원시 행정구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 48

〈표 3-22〉 창원시 지방문화원 현황..... 48

〈표 3-23〉 창원시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 50

〈표 3-24〉 창원시 문화의 집 현황..... 50

〈표 3-25〉 창원시 행정구역별 문화의 집 운영 현황..... 52

〈표 3-26〉 인구 100만 대도시 간 문화시설 수 비교 분석..... 53

〈표 3-27〉 인구 100만 대도시 간 문화시설 공급 지수 비교 분석..... 54

〈표 3-28〉 문화·체육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구별..... 57

〈표 3-29〉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대상..... 59

〈표 3-30〉 문화공간 수용력 범위..... 60

〈표 3-31〉 전시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62

〈표 3-32〉 공연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64

〈표 3-33〉 지역문화복지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67

〈표 3-34〉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71

〈표 3-35〉 도서관 수용 범위 분석 결과..... 73

〈표 3-36〉 시민의견 조사 내용..... 76

〈표 3-37〉 응답자 특성..... 77

〈표 3-38〉 문화시설 이용 지역..... 90

〈표 3-39〉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인지도	100
〈표 3-40〉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이용률	101
〈표 4-1〉 폐교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1	105
〈표 4-2〉 폐교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2	106
〈표 4-3〉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1	107
〈표 4-4〉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2	108
〈표 4-5〉 폐부지(폐공장)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109
〈표 4-6〉 폐부지(폐공장)를 활용한 전시시설 사례	110
〈표 4-7〉 폐공장을 활용한 도서관 사례	111
〈표 4-8〉 빈점포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112
〈표 4-9〉 빈점포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113
〈표 4-10〉 빈점포를 활용한 전시시설 사례	114
〈표 4-11〉 지하보도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115
〈표 4-12〉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시시설 사례	116
〈표 5-1〉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현황	120
〈표 5-2〉 창원시 유휴공간 우선 개발 지역 현황	121
〈표 5-3〉 창원시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 종합분석 결과	122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6
〈그림 2-1〉 문화정책의 시대적 변화	16
〈그림 3-1〉 창원시 활용 가능한 폐교 분포도	29
〈그림 3-2〉 창원시 활용 가능한 빈집 분포도	32
〈그림 3-3〉 창원시 활용 가능한 빈점포 분포도	34
〈그림 3-4〉 창원시 활용 가능한 지하보도 분포도	36
〈그림 3-5〉 창원시 활용 가능한 폐부지 및 폐공장 분포도	38
〈그림 3-6〉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분포도	39
〈그림 3-7〉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개념도	55
〈그림 3-8〉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범위 개념도	60
〈그림 3-9〉 창원시 전시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62
〈그림 3-10〉 창원시 공연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64
〈그림 3-11〉 창원시 지역문화복지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67
〈그림 3-12〉 창원시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71
〈그림 3-13〉 창원시 도서관 수용 범위 현황도	73
〈그림 3-14〉 자료처리 프로세스	75
〈그림 3-15〉 전시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78
〈그림 3-16〉 행정구역별 박물관 인지도 및 이용률	79
〈그림 3-17〉 행정구역별 미술관 인지도 및 이용률	79
〈그림 3-18〉 공연시설 인지도 및 이용률	80
〈그림 3-19〉 행정구역별 소공연장 인지도 및 이용률	81
〈그림 3-20〉 행정구역별 종합공연장 인지도 및 이용률	81
〈그림 3-21〉 행정구역별 영화관 인지도 및 이용률	82
〈그림 3-22〉 지역문화복지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83

〈그림 3-23〉 행정구역별 지역문화복지시설 이용률	83
〈그림 3-24〉 문화보급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84
〈그림 3-25〉 행정구역별 문화보급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85
〈그림 3-26〉 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86
〈그림 3-27〉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87
〈그림 3-28〉 행정구역별 작은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87
〈그림 3-29〉 행정구역별 월간 문화시설 이용횟수(회)	88
〈그림 3-30〉 연령대별 월간 문화시설 이용횟수(회)	89
〈그림 3-31〉 창원시 소재 문화시설 결정 요인	90
〈그림 3-32〉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결정 요인	91
〈그림 3-33〉 창원시 소재 문화시설 미이용 결정 요인	92
〈그림 3-34〉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미이용 원인	92
〈그림 3-35〉 행정구역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93
〈그림 3-36〉 행정구역별 가장 만족하는 문화시설	94
〈그림 3-37〉 행정구역별 가장 불만족하는 문화시설	94
〈그림 3-38〉 행정구역별 부족한 문화시설	95
〈그림 3-39〉 행정구역별 유희공간 인지 여부	96
〈그림 3-40〉 인지 유희공간 유형	97
〈그림 3-41〉 행정구역별 인지 유희공간 유형	98
〈그림 3-42〉 유희공간 활용 문화시설 유형	98
〈그림 3-43〉 행정구역별 유희공간 활용 문화시설 유형	99
〈그림 5-1〉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분포도	120
〈그림 5-2〉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기본방향	124
〈그림 5-3〉 창동예술촌 전경	126
〈그림 5-4〉 진해구 소사마을 김씨박물관 전경	129
〈그림 5-5〉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례	138
〈그림 5-6〉 바른자세 및 바른 걷기 프로그램 사례	138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특히, 유럽의 공업도시들은 1980년대 이후 탈공업화를 경험하면서 산업공동화, 성장 동력 상실 등 도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유럽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도시 내 소재한 유휴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저임금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한 신흥개발도상국에 제조업, 중공업 시장을 내어준 유럽도시들은 산업 공동화와 도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킴

-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 슬럼화 방지, 도시 이미지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
 - 대표적으로 영국의 테이트 모던은 버려진 도시 발전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역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역을 세계적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킴
- 국내에서도 폐 공장, 빈집, 지하보도 등 지역의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시키면서 도시재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공간 및 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총 173.4억원을 투입함
 -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5년간 추진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함
- 창원시는 1980~1990년대 유럽의 공업도시와 같이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면서 산업단지 내 빈 공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도시 확장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됨

- 이에 창원시는 마산 원도심 지역에 국내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 2008년 국내 최초로 도시재생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B)로 선정되어 마산 창동을 재개발함
 - 2019년 현재 선도지역, 도활지역, 새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 창원시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창원시 전체에 대한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마산지역의 창동 도시재생사업, 진해지역의 여좌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그러나 급격한 도시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희공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활용 방향 및 정책 수립은 미흡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문화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유희공간 활용이 가능한 문화시설을 도출하고,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창원시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설정함
- 첫째, 창원시에 소재한 유희공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여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 버려진(방치) 공간 및 기능이 쇠퇴한 공간 등 창원시 소재 유희공간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창원시 5개 행정구역별(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유희공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유희공간의 분포 특성을 도출함
- 둘째, 창원시 문화시설 공급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여 문화 소외 지역을 파악하고, 문화 소외지역에 소재한 유희공간을 도출하여 유희공간 활용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함
 - 창원시 전체 문화시설의 공급 적정성을 분석하고,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유희공간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셋째, 창원시 유희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
 - 창원시 유희공간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시민이 원하는 문화시설과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을 도출함
 -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에 있어 단계별 추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유희공간 개발 시 지침서 역할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희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 공간적 범위 : 창원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창원시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은 창원시 유휴공간 현황과 문화시설의 공급 범위 등을 분석하여 문화소외지역 내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도출함
 - 창원시민 유휴공간 의견조사는 창원시민의 문화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창원시민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국내에서 선행적으로 개발한 사례를 분석함
 - 창원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은 문화적 소외지역에서 창원시민 원하는 문화시설과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도출하고, 유휴공간 활용 시 중점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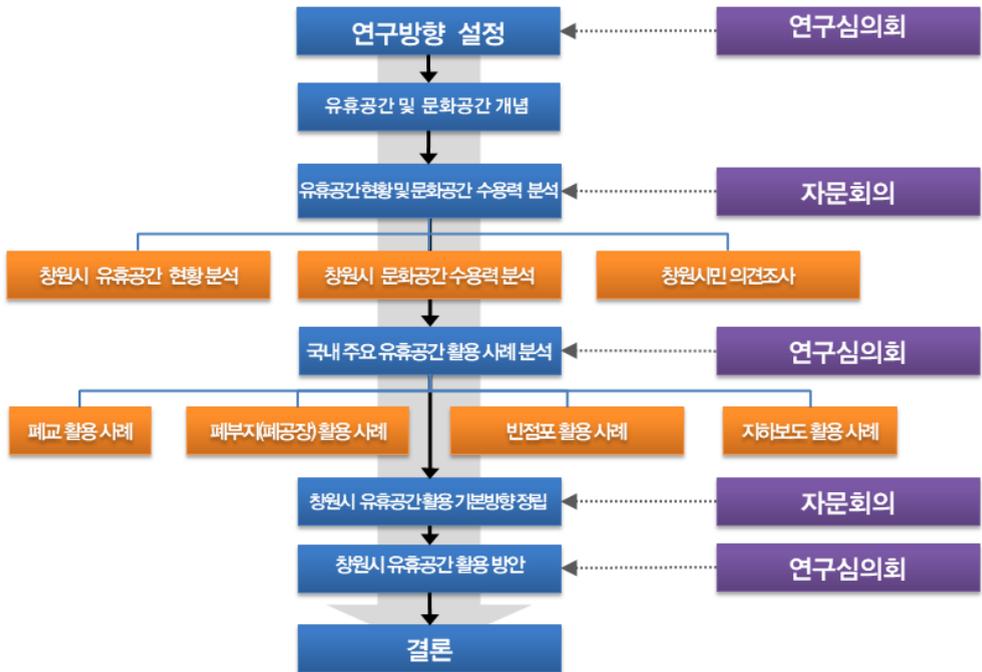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연구보고서, 간행물, 연구 논문 등을 조사하여 창원시 유휴공간 현황 및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을 실시함
- GIS분석 : 창원시 유휴공간 및 문화시설의 분포를 파악하고, 문화소외 지역과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도출하기 위해 GIS 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 :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공간의 활용 여부 및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3) 연구 수행 체계

-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 연구는 총 7단계로 연구를 수행함
 -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등 연구방향을 설정함
 - 유희공간 및 문화적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및 문화공간(시설)의 수용력을 분석함
 - 국내 주요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를 분석함
 -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함
 -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함
 -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제2장 유희공간 및 문화적 공간 개념



1. 유희공간의 개념

1.1 유희공간의 발생 배경

- 도시에서 유희공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구조가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유희공간이 발생함
- 도시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1차산업에서 2차산업 중심으로 도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였고, 도시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대도시가 형성됨
 - 근대화의 핵심 원동력은 자본주의 체제, 산업화, 공업화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술 발달, 생산력 증대, 시민사회 등장을 초래하여 산업혁명과 함께 대도시를 탄생시킴(이덕진, 2014)
 - 대도시의 탄생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인력을 도시로 집중시키고, 자본이 결집되면서 국가는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거대도시 성장을 가속화함

- 도시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도시 내 활용 토지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건물 및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야기시킴
 -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기반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주택 및 상업용지는 저밀도에서 중밀도, 고밀도로 점차 밀도가 높아짐
- 도시의 밀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대도시는 도시의 중심부 주변에 부도심을 형성하기 시작함
 - 도시의 중심부 주변으로 여러 부도심이 형성됨에 따라 도시로 결집된 기능은 부도심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중심부의 인구감소와 기능상실로 이어지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함
 - 더불어 지식기반산업, 정보화산업, 4차산업 등장으로 인해 산업구조는 빠르게 재편되었고, 제조업을 동력으로 성장한 산업도시들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쇠퇴의 길을 맞이하게 됨
- 특히, 근대화와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희공간이 발생하였고,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유럽의 도시들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결국은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동화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

1.2 유희공간의 정의

- 유희공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유희(遊休)는 ‘현재 운행이나 기능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 혹은 ‘활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空間)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을 의미함
 - 즉, 유희공간이란 현재 운행이나 기능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빈 곳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유희공간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모든 공간을 포괄함
 - 구체적으로 저개발, 저활용, 노후화된 자투리 공간 또는 의도적 이거나 우발적으로 사회를 나누는 물리적 구획물, 개발에서 소외당한 낙후공간, 신개발의 영향으로 파편화되고 단절된 공간을 모두 포함(백나영 · 민홍찬, 2002)
- 유희공간에 대한 학자들 간 일치된 개념은 없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정의함
-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유희공간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됨
 - 첫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활용되지 않거나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공간으로 정의함
 - 둘째, 본래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활용되다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상실되어 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함

- 도시에 이미 존재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공간을 ‘방치된 공간’ 으로 정의함
 - 대표적인 예로는 고가도로의 하부,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건물의 옥상, 중앙 분리선 등임
- 도시의 환경변화에 따라 생성된 공간이지만 기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쇠퇴한 공간’ 으로 정의함
 - 쇠퇴한 공간의 예로는 철도, 항만, 폐교, 빈집, 빈상가, 폐공장, 폐부지 등임

〈표 2-1〉 유희공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연도)	유희공간 개념 정의
곽수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 또는 변용에 의해 기능을 상실한 공간 • 사용되지 않는 자투리 공간 • 환경변화로 인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쓸모없는 시설 공간
이상준 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속 공간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 • 기능과 공간에 대한 방치 및 방기에 의해 형성된 공간
김연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은 공간, 쓸모없는 공간 등의 용어와 구별 필요 • 유보의 의미에서 유희시설, 유희지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
신동식 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남아있는 공간이 아닌 향후 재사용 가능한 공간
김현주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발전 및 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 및 용도가 상실된 건축물, 산업시설, 기반시설 • 이들 시설물 철거 후 발생한 폐부지

출처 : 임유경 외(2012),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에서 발췌함

- 선행연구에서는 유희공간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방치된 공간, 쇠퇴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유희’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함
 - 유희공간을 단순히 방치된 공간, 쇠퇴한 공간으로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이 아닌 향후 언젠든 사용 가능한 공간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정의함
 - 즉, 현재는 공간의 쓰임이 없어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지만, 활용 방안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공간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유희공간을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성된 공간이지만 기능 및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함
 - 쇠퇴한 공간으로서 기능 및 역할 상실로 인해 잠정적 유보 상태이지만 향후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공간적 의미를 내포함
 - 또한, 유희공간은 기능 및 역할을 상실한 시설물과 시설물이 철거된 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1.3 유희공간의 유형 및 범위

- 유희공간은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도심중심 그리고 외곽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함
 - 일반적으로 유희공간은 대도시 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인해 과거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공간(시설)이 상실 또는 쇠퇴하면서 용도 변경으로 발생함
- 우선, 지역산업 쇠퇴로 인해 관련 시설의 기능 및 활용도가 저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희공간이 발생함
 - 대표적으로 산업시설로서 제조업 공장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시설로 변화하지 못하여 폐공장 또는 폐부지로 방치됨
- 다음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또는 인구유출로 인해 유희공간이 발생함
 - 대도시의 등장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폐교 등이 발생함
- 도시의 급격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부도심 지역으로 도심의 기능이 이전하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유희공간이 발생함
 - 부도심 형성으로 인해 인구이동에 따라 기존 원도심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발생함

- 또한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따라 공공부지가 활용되지 않아 방치된 경우 유희공간에 포함하며, 고가도로 및 하부공간 미활용에 따라 유희공간이 발생하기도 함

〈표 2-2〉 유희공간 발생원인 및 유형

발생원인	공간구분	유희공간 발생 양태	
기능 상실	군사시설	군사시설 이적지	
	산업시설	공장 이적지	
	행정시설	행정기관 이적지	
	교육시설	폐교	
	교통시설	폐선부지, 옛 역사	
	기타시설		폐발전소
			폐정수장/유수지, 경마장, 매립지 등
도심공동화	비활성 지하상가도심슬럼화 지역 등		
기능부재	자연발생 자투리 공간	도로, 가로 자투리 공간, 교각 하부 등	
한시적 이용	정기시장	전통 5일장	

출처 : 김연진(2002),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발췌.

-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희공간을 방치되거나 버려진 공간과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여 쇠퇴한 공간으로 구분함
 - 즉, 도시 내 소재한 유희공간의 개발여부와 기능상실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분류함
 - 유희공간이 특정 목적 또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가 기능 상실로 인해 형성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함
 - 본래부터 특정 목적 또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지 않았으며, 기능과 역할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분류함

〈표 2-3〉 유희공간 발생원인 및 유형

발생원인	방치된 유희공간	기능 상실된 유희공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도로, 철도교량 등의 하부공간 • 주택단지 내부의 미활용 공간 • 공원내부의 미활용 공간 • 교통섬, 강변, 우수지 등 • 장기 미집행 공공부지 공간 •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 자투리 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산, 폐산업, 폐상업시설 등 • 폐 공장부지, 폐 박물관 등 • 폐역사, 폐철도부지 등 • 폐교(공교) •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및 상가 • 상점가 배후의 골목길 • 기타공간과 시설

출처 : 이정수 외(2009),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이렇듯 도시의 유희공간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들 간 일치된 분류 방법은 없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유희공간의 유형 및 범위를 공간의 개발 여부와 공간 기능 상실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함
 - 기존에 도시의 성장 및 발전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개발된 공간으로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공간을 유희공간의 유형 및 범위로 적용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유희공간의 유형 및 범위는 폐교, 전통시장 내 빈점포, 지하보도, 폐부지(폐공장) 등으로 규정함
 - 연구기간, 연구비용, 자료 획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희공간의 유형 및 범위를 규정함

2. 문화공간의 개념

2.1 문화공간의 정의

- 문화는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특정 시간과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님
 - 영국의 인류학자 테일러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사회 구성원이 습득한 능력과 관습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총체로 정의함
 - 그 외에도 어떠한 공동체 즉, 특정한 단체 혹은 집단의 전체적인 생활방식, 한 사회의 가치, 제도, 관계, 상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문화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성화되는 과정과 결과물을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의 한정된 영역속에서 표현되는 특징을 가짐(김준, 2015)
- 문화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문화공간 역시 문화가 만들어지는 특정 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문화시설 내 공간을 의미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공간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등으로 구분함
 - 그러나 문화공간은 하나의 특정한 공간이 아닌 인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특정 공간이므로 단순히 문화시설 내 공간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체제에서 수요가 공급 및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소비패턴을 지닌 형태로 변화함
 -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는 주거, 직장, 여가, 소통, 등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반영되었으며, 문화소비에도 영향을 주어 문화공간에 대한 의미도 변화함
- 최근 문화공간은 현대인의 생활양식 다변화로 인해 점차 확장되는 추세임
 - 단순히 문화시설에서 벗어나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문화벨트 등 일상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됨
 -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 예술과 전통을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정책이 현대에서는 일상 및 생활 문화로 변화함

〈그림 2-1〉 문화정책의 시대적 변화



출처 : 라도삼(2005), 「문화환경의 창출과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 또한, 문화공간은 현대인의 생활양식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됨
 - 과거 문화공간이 문화를 창작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통 공간이었다면 최근 문화공간은 단순히 소통의 공간을 넘어 매개, 전달, 확산하는 공간으로 변화함
 - 즉, 문화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 교류의 기회, 장르간 융합, 소통의 공간이자 일반인에게는 감상, 교육, 체험 등의 향유의 공간으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함

〈표 2-4〉 현대 문화공간의 특징

구분	주요특징
상호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 시설, 기능과 같은 동질적인 것 간의 연관성 • 시설과 인프라, 기술과 서비스, 기능과 소프트 등과의 이질적인 것 간의 연관성(예, 주거시설+상업시설 → 주상 복합건물) • 기술+서비스+시설, 전자컴퓨터 기술+영화제작+영화관 → 영상 산업
유기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연관성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 개별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
시너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공간의 비용절감, 집적이익 발생 • 패키지화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신기능 상품 이미지 창출 등 사업주체의 다양한 이익 발생
경쟁력 및 효율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목적하는 경쟁우위 및 효율 극대화 달성
다양한 분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업무, 사업, 판매나 구매, 생활 등 개별 아이템의 복합화 • 오피스, 관광과 위락, 공장, 상업복합화 등 기능 복합화, 구체적으로 투영되는 공간적 범위의 복합화

출처 : 이혜진(2008), 「도시속의 도시·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여행」.

- 본 연구에서 문화공간이란 문화시설을 포함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권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2.2 문화적 활용

-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상실된 기능 및 역할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재생의 의미를 지님
-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되거나 폐기된 시설을 개선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 도시재생은 1950년대 도시재구축, 1960년대 도시재활성화, 1970년대 전면재개발, 1980년대 도시재개발 등으로 발전함
- 그러나 도시재생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함에 따라 일자리, 주택, 교육, 안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함
-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도시재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생을 통해 도시 부흥을 도모함
 - 즉,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회귀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지속가능한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함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특징은 종합적인 접근으로 통합된 개선 강조, 지역차원의 활동 및 성장 도모,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 강조 및 문화유산(자원) 보전 등임
 - 도시의 물리적 공간 개선과 함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으로서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함

〈표 2-5〉 도시재생의 개념

시기	구분	내용
1950년대	도시재구축 (urban re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개선 중점 • 주택, 교육, 실업, 사회문제 등 별도 취급 • 새로운 지역 개발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 초래
1960년대	도시재활성화 (urban revitalization)	
1970년대	전면재개발 (urban renewal)	
1980년대	도시재개발 (urban redevelopment)	
1980년대 후반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원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 통해 도시부흥 도모 • 도시의 무분별한 외부확산 억제 및 도심부 쇠퇴 방지 • 도심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 회귀 촉진
1990년대 후반	도시재생 또는 활성화 (urban regeneration urban revit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내 쇠퇴 또는 저활용 지역의 물리적 개선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도시 활성화 •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및 도시 문제 해결

출처 : 진광배(2009), 「춘천시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시설의 구성유형과 입지에 관한 연구」.

- 결국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언급하는 도시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하거나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또는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의 쇠퇴를 최소화하고, 문화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촉진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본 연구에서 문화적 활용이란 기존의 기능 및 역할을 상실한 유희공간에 문화적 콘텐츠를 적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시설)으로 활성화(revitalization)하는 것을 의미함

3. 국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

3.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정책

1)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공간 및 기존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임
 - 나아가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을 도모함
-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964개 작은도서관이 조성 및 운영 중임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32억원을 투입하여 약 311개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함

〈표 2-6〉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도서관 수	588	31	18	16	311	964
예산(백만원)	360	17.2	10.8	10.2	232	630.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로 인해 호응도가 매우 높으나 지원 이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상존함

2)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문화시설 활용 또는 지역의 유희 공간을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규모는 2014년 리모델링 지원으로 110억 원을 지원함
 - 이를 통해 2014년 34개 시설을 선정한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표 2-7〉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문화센터(개)	34	102	105	146	15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 생활문화센터는 생활권형과 거점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권형은 읍·면·동 단위로 조성을 추진하고 거점형은 광역 시·군·구 단위로 조성이 추진 중임
- 사업초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시설물 중심의 하드웨어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추진 중임

3)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격한 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됨
 - 지역에 소재한 근대산업유산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및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산업유산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5개소(포천, 군산, 신안, 대구, 아산)를 선정함

〈표 2-8〉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지자체	특화영역	주요내용
경기도 포천시	돌, 조각	폐채석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전북 군산시	근대사, 공연	세관창고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전남 신안군	소금, 체험	증도 태평염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대구광역시	예술창작	유휴 KT&G 창고 활용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충남 아산시	공연, 전시	폐철도 및 주변 활용 문화공간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후속적인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조성 이후 지자체의 운영 관리 부실로 인해 문화공간의 노후화가 발생함
 - 군산시는 지역근대산업유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 창출함

4)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은 전통 시장을 지역 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목적을 추진됨
- 문전성시 사업의 주요내용은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시장별 스토리텔링 및 시장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특화 문화마케팅 지원, 공공미술, 김광석 길 등 문화적 환경 조성 등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 2008~2013년까지 전국 27개 시장에 총 118억원을 지원함

〈표 2-9〉 문전성시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시장 수	2	6	16	22	14	5	65
예산(백만원)	1,160	1,200	3,800	3,585	1,772	250	11,76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 문전성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환점 역할을 수행함
 - 문전성시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통시장의 문화공간화 및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 또한,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속적인 이용객을 증가시키려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3.2 타 부처 관련 정책

1) 기획재정부의 유휴 공유시설 활용 계획

- 일반적으로 유휴 공유시설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기획재정부는 전체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는 2007년 유휴 공유시설이 주민복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마련함
- 활용 계획의 핵심적 내용은 전국 유휴 공유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 하도록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유휴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단계별 주무부처의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수행함

〈표 2-10〉 유휴 공유시설 활용 계획

계획	효과
유휴 공유시설 DB화	•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수요 파악 가능
수요부처와 공공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로 활용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유휴 공유시설 활용을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	•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함
복합시설 조성 유도를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	•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생활문화 공간 조성의 가능성을 높여 주어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중앙부처의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타 부처가 적극적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유휴시설 활용도 반영	•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시설 활용 사업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제로 작용
유휴시설 활용 모델 개발	• 유휴시설 특성 및 입지여건에 따라 문화공간 조성 모델을 만들어 추진 가능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방안」.

2) 농림수산물부품의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어업용 시설, 폐교 등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수요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농촌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과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 형성하고, 공간과 공간 간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함
- 또한, 신문화공간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농 문화교류의 거점을 형성함
 - 2009년까지 선정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는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6개 시·군이 선정됨

〈표 2-11〉 신문화공간 조성 대표사례

지역	지역의 잠재성	공간 활용 계획
강원 횡성군	금광과 주막거리가 있던 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강좌, 지역예술인의 공연장, 방과 후 어린이 학교로 활용
제주 서귀포시	중간산 마을 특유의 생태자원과 목축문화의 복원 활용이 가능한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축문화 체험캠ป์, 도예공방, 사진아카데미, 염색체험 등으로 활용 • 지역주민의 교류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방안」.

- 2012년 이후 농림수산물부품의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확대되지 않았으며,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역시 문화공간 거점화에는 실패하는 한계점이 드러남

3) 행정안전부의 공공 유희공간 민간활용지원 사업

- 공공 유희공간 민간활용지원 사업은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됨에 따라 폐청사, 폐교 등 활용도가 낮아진 국·공유재산의 활용방안 모색에서 시작됨
- 특히, 공공 유희공간 민간 개방 및 공유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됨
- 공공 유희공간 민간활용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원 이며, 전국 4개소 내외(지역별 배분 예정)를 지원할 예정임
 - 사업대상은 지자체가 보유한 유희 및 저활용 공유재산을 운영 주체가 5년 이상 장기사용이 가능한 시설임(지자체 신청)

〈표 2-12〉 공공 유희공간 민간활용지원 사업 유형

유형	내용
주거공유 공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보유한 직원숙소 등 유희·저활용시설을 지역 청년, 혁신활동가들의 세어하우스, 공유주방 등 공간으로 조성 • 청년, 혁신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청년공동체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유입 및 지역활력 회복 등 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예술창작실험 공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이전부지, 저활용 도서관시설 등을 활동공간이 부족한 지역 예술가 등 예술단체에서 창작과 다양한 실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지역예술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수행
청년일자리 창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이전 부지, 저활용 도서관시설 등을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소통 협업 공간으로 조성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및 상호 소통의 비즈니스플랫폼 공간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유공간형 등 3가지 유형이 혼합된 공간을 조성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방안」.

제3장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및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1.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1.1 창원시 폐교 현황

- 2020년 기준 창원시에는 20개의 폐교가 소재하며, 경상남도(254개) 대비 7.9%를 차지함
- 창원시에 소재한 20개의 폐교 중 현재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14개소이며, 미활용 폐교는 6개소로 나타남
 - 창원시 폐교 활용 비율은 70%, 미활용 비율은 30%를 차지함

〈표 3-1〉 창원시 폐교 현황

구분	폐교 수	매각 폐교	활용 폐교	미활용 폐교
창원시(개소)	20	-	14	6

자료 : 연구자 작성

- 창원시 폐교 활용 유형은 대부 9개소(64.3%), 자체활용 5개소(35.7%), 미활용 6개소(30.0%)로 나타남

- 창원시 폐교의 활용 형태는 교육용 시설 5개소, 문화시설 3개소, 공공체육시설 1개소(자체활용 제외)로 나타남
 -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폐교는 구복예술촌, 삼진미술관, 마산아트센터 등이며, 마산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중임

〈표 3-2〉 창원시 폐교 활용 현황

폐교명	급별	활용현황	대부내역
구남중 구산분교장	중학교	미활용	-
구암여자중	중학교	자체활용	-
반동초 구복분교장	초등학교	대부	구복예술촌 운영
반동초 옥곡분교장	초등학교	미활용	-
반동초 원전분교장	초등학교	미활용	-
북면초	초등학교	자체활용	-
북면초 화천분교장	초등학교	대부	환경체험프로그램 교육장 운영
상북초	초등학교	대부	삼진미술관 운영
양곡초 귀산분교장	초등학교	대부	친환경먹거리체험학교 운영
양촌초	초등학교	대부	마산아트센터운영
옥봉초	초등학교	대부	경남초등교육연구회관운영
용산초	초등학교	대부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장 운영
웅천초	초등학교	자체활용	-
웅천초 명동분교장	초등학교	미활용	-
중리초 안평분교장	초등학교	미활용	-
진동초 태봉분교장	초등학교	자체활용	-
진전초 낙동분교장	초등학교	대부	환경교육 및 친환경습터 운영
진전초 여항분교장	초등학교	미활용	-
진해동중	중학교	자체활용	-
하북초 진북분교장	초등학교	대부	주민생활체육시설운영

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1.2 창원시 빈집 현황

- 2019년 기준 창원시에는 총 1,118호의 빈집이 소재함
 - 창원시 빈집은 2018년 854호에서 2019년 1,118호로 전년 대비 23.6%(264호)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빈집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창원시 자체 조사 자료 간 데이터 값이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자체조사 자료를 활용함
- 창원시 빈집의 소재 유형은 농촌지역 빈집 116호, 도시지역 빈집 1,002호로 나타남
 - 도시지역 빈집은 창원시 전체 빈집의 89.6%를 차지하며, 농촌 지역 빈집 대비 약 8.7배 높음
 -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에서 빈집 증가가 높게 나타남

〈표 3-3〉 창원시 빈집 현황

(단위 : 호, %)

구분	농촌지역	도시지역	총계	증감율
2018년	101	753	854	-
2019년	116	1,002	1,118	23.6%

자료 : 연구자 작성

- 창원시 빈집 1,118호 중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323호,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795호로 나타남
 - 창원시 전체 빈집의 71.1%는 활용이 불가능한 철거형 빈집임

〈표 3-4〉 창원시 빈집 유형

구분	활용 가능 빈집				활용 불가능 빈집
	활용가능형	활용동의형	활용형	계	철거형
빈집 수(호)	6	46	271	323	795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활용이 가능한 빈집 323호 중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빈집은 129호로 나타남
 - 활용 가능한 빈집의 39.9%는 재개발지역에 소재함
- 창원시 빈집 가운데 재개발지역과 거주가능한 빈집을 제외한 실제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총 52호임
 -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활용 가능한 빈집은 문화시설로 조성 불가능함에 따라 제외함
 - 활용형 빈집은 일시적 기능 상실로 인해 거주가 가능한 빈집으로 판단되어 제외함

〈표 3-5〉 창원시 문화시설 활용 가능한 빈집 수

구분	활용 가능 빈집	재개발지역 소재 빈집	거주 가능한 빈집	문화시설 활용 가능한 빈집
빈집 수(호)	323	129	142	194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마산합포구 46호, 진해구 6호로 나타남
 - 의창구와 성산구는 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빈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창원시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활용 가능한 빈집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빈집 수(호)	46	-	-	-	6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창원의 빈집 분포를 살펴보면 마산합포구의 경우 상남동, 오동동, 산호동을 중심으로 약 12개 행정동에 빈집이 분포함
- 반면, 진해구는 경화동, 제황산동, 충무동 등 3개 행정동에 빈집이 밀집되어 분포함

〈그림 3-2〉 창원시 활용 가능한 빈집 분포도



1.3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가 빈점포 현황

- 2019년 기준 창원시 빈점포는 총 1,562개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빈점포는 마산합포구 518개로 가장 많으며, 마산회원구 367개, 성산구 345개, 의창구 287개, 진해구 45개 순으로 나타남

〈표 3-7〉 창원시 빈점포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빈점포	287	345	518	367	45	1,562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창원시 상가지역 내 빈점포는 661개이며, 전체 빈점포의 42.3%를 차지함
 - 행정구역별 상가지역 빈점포 비율은 마산회원구 22.7% 가장 높은 반면, 성산구 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8〉 창원시 상가지역 빈점포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전체 점포 수	879	538	1,012	1,925	41	4,395
빈점포 수	88	122	229	167	5	611
비율	10.0%	22.7%	22.6%	8.7%	12.2%	13.9%

자료 : 연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창원시 전통시장 내 빈점포는 951개이며, 전체 빈점포의 57.7%를 차지함
 - 행정구역별 전통시장 빈점포 비율은 마산회원구 29.8%로 가장 높은 반면, 진해구와 의창구 각각 6.4%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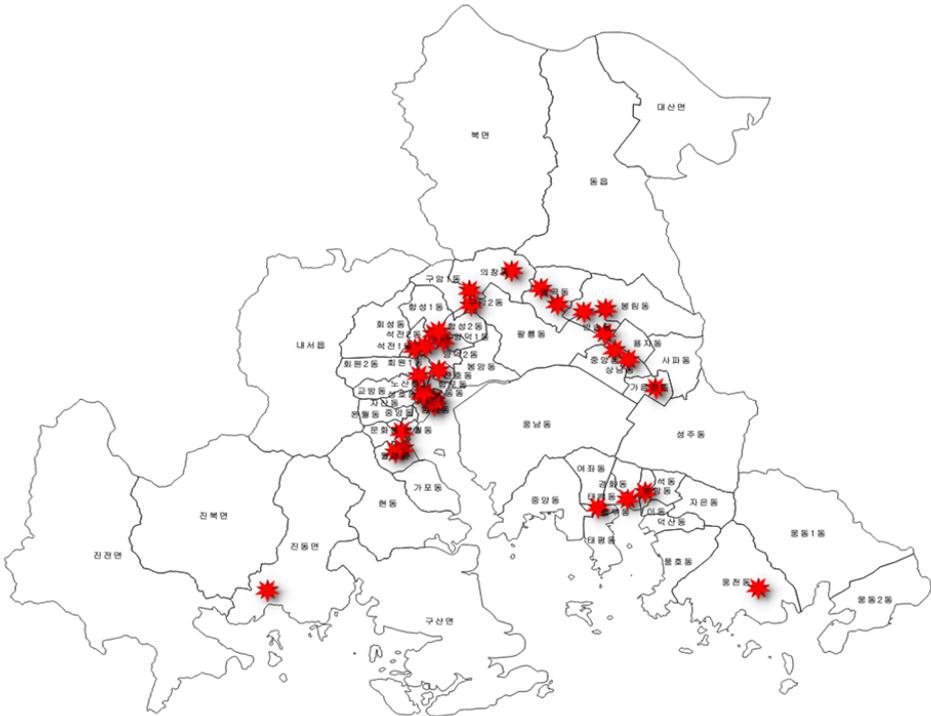
〈표 3-9〉 창원시 전통시장 빈점포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전체 점포 수	3,097	821	905	1,203	627	6,653
빈점포 수	430	245	58	178	40	951
비율	13.9%	29.8%	6.4%	14.8%	6.4%	14.3%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최종적으로 창원시 빈점포 중 유휴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빈점포는 951개임
- 상가지역 빈점포는 일시적 기능 상실로 향후 입점 및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유휴공간에서 제외함

〈그림 3-3〉 창원시 활용 가능한 빈점포 분포도



1.4 창원시 지하보도 현황

- 2019년 창원시 지하보도는 총 17개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는 성산구 7개, 의창구 4개, 성산구 3개, 진해구 2개, 마산합포구 1개 순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하보도 비중은 성산구 41.2%, 의창구 23.5%, 마산회원구 17.6%, 진해구 11.8%, 마산합포구 5.9% 순으로 나타남

〈표 3-10〉 창원시 지하보도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지하보도 수	1	3	4	7	2	17
비율	5.9%	17.6%	23.5%	41.2%	11.8%	100.0%

자료 : 연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창원시 지하보도의 총 면적은 6,608㎡(2,002PY)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는 성산구 2,821㎡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의창구 1,720㎡, 마산회원구 1,017㎡, 진해구 900㎡, 마산합포구 151㎡ 순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하보도 비중은 성산구 42.7%, 의창구 26.0%, 마산회원구 15.4%, 진해구 13.6%, 마산합포구 2.3% 순으로 나타남

〈표 3-11〉 창원시 지하보도 면적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면적(㎡)	151	1,017	1,720	2,821	900	
비율(%)	2.3%	15.4%	26.0%	42.7%	13.6%	100.0%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창원시 지하보도 중 유희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지하보도는 총 17개임
- 창원시에 유희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지하보도 분포를 살펴보면 계획도시로 조성된 창원지역과 상대적으로 도로조성이 잘되어 있는 마산지역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림 3-4〉 창원시 활용 가능한 지하보도 분포도



1.5 창원시 폐부지(공장) 현황

- 2019년 기준 창원시에는 총 39개의 폐부지 및 폐공장이 소재함
 - 행정구역별로는 성산구 21개로 가장 많으며, 의창구 12개, 마산합포구 4개, 진해구 2개 순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폐부지 및 폐공장 비율은 성산구 53.8%, 의창구 30.8%, 마산합포구 5.1% 순으로 나타남

〈표 3-12〉 창원시 폐부지 및 폐공장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폐부지 수	4	-	12	21	2	39
비율	10.3%	-	30.8%	53.8%	5.1%	100%

자료 : 연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창원시 소재 폐부지 및 폐공장의 총 면적은 2,891,254㎡ (876,137PY)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는 성산구 1,604,576㎡로 가장 많은 반면, 진해구 36,230㎡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폐부지 및 폐공장 비중은 성산구 55.5%, 의창구 28.2%, 마산합포구 15.1%, 진해구 1.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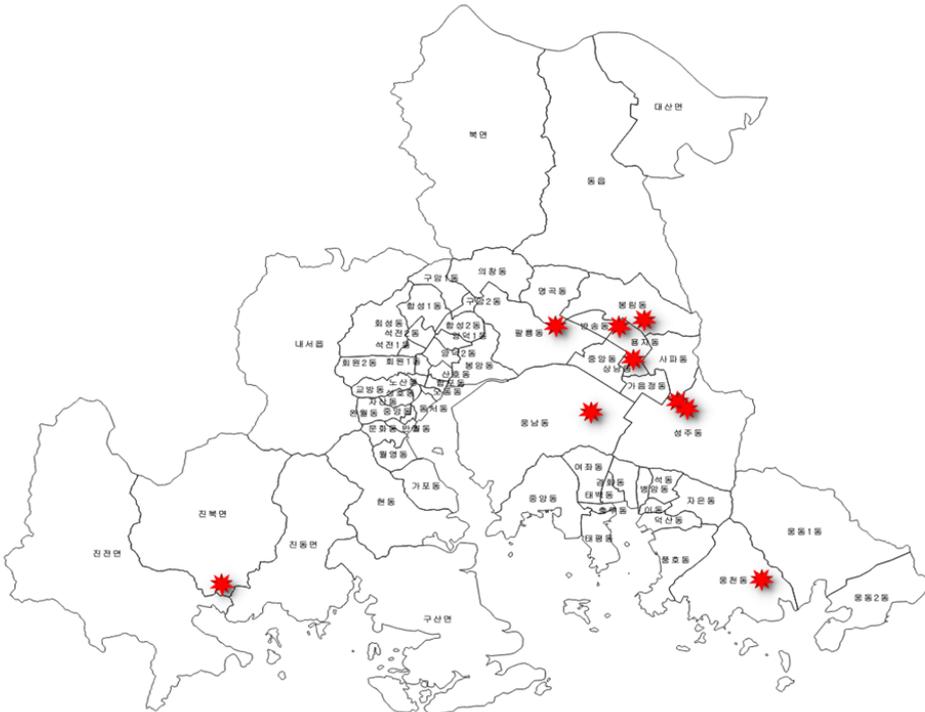
〈표 3-13〉 창원시 폐부지 및 폐공장 면적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면적(㎡)	435,502	-	814,946	1,604,576	36,230	2,891,254
비율(%)	15.1%	-	28.2%	55.5%	1.3%	100%

자료 : 창원시 내부자료 활용 연구자 작성

- 창원시 폐부지 및 폐공장 중 유희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폐부지 (공장)는 9개소임
 - 창원시 소재 폐부지 및 폐공장 중 기능 상실되지 않은 공간과 활용계획이 수립된 공간은 유희공간에서 제외함
- 창원시에 유희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폐부지 및 폐공장 분포를 살펴 보면 국가산업공단과 일반산업공단이 구성되어 있는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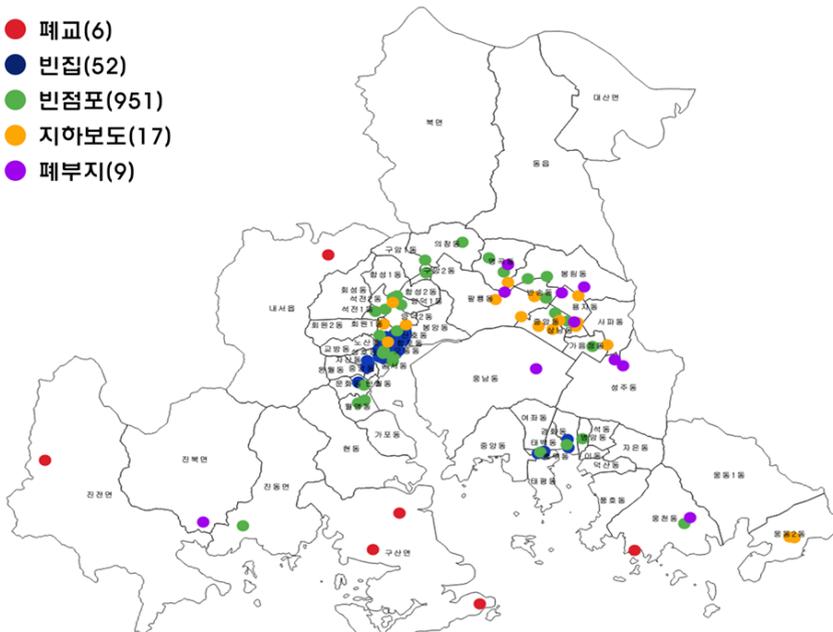
〈그림 3-5〉 창원시 활용 가능한 폐부지 및 폐공장 분포도



1.6 창원시 유휴공간 현황분석 시사점

- 창원시에 소재한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GIS 분석을 통해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시설) 조성은 진전면, 구산면, 내서읍, 웅천동 등 도심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빈집을 활용한 문화공간(시설) 조성은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빈점포 및 지하보도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공간(시설)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넷째, 폐부지는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그림 3-6〉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분포도



2.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2.1 창원시 주요 문화시설 현황

- 창원시 주요 문화시설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창원시 주요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
 - 세부적으로 「전국 문화시설기반 총람」에서 분류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함
- 또한, 창원시 주요 문화시설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시설 공급 규모를 비교 분석함
 - 인구 100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함

1) 공공도서관

- 2019년 기준 창원시에는 총 17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경남 대비 23.9%를 차지함
 - 경상남도 도서관은 71개소이며, 지자체 운영 도서관 45개소, 교육청 운영 도서관 25개소, 민간 운영 도서관 1개소로 나타남
- 창원시 공공도서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13개소이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4개소임

〈표 3-14〉 창원시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경남	45	25	1	71
창원시	13	4	-	17
비율(%)	28.9%	16.0%	-	23.9%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제작성

-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8,166석, 연간 운영 예산은 236억원으로 공공도서관 1개소 평균 48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1개소 당 평균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의창구·마산회원구 각각 4개소, 마산합포구·성산구·진해구 각각 3개소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규모는 의창구 2,301석으로 가장 규모가 큰 반면, 진해구 908석으로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은 의창구 94.1억원, 성산구 57.3억원, 마산합포구 30.6억원, 마산회원구 26.8억원, 진해구 26.7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창원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 수는 642만 명이고, 연간 이용 서적은 273만권으로 연평균 1인당 2권 내외 서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마산회원구 196만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진해구 88만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이용 서적은 성산구 76만권으로 가장

높으며, 의창구 60만권, 마산회원구 47만권, 마산합포구 46만권, 진해구 45만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창원시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자 수, 이용 서적 수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의창구는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규모가 크고, 운영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와 이용서적 수에서 마산회원구 및 성산구에 비해 적게 나타남

〈표 3-15〉 창원시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구분	도서관 수 (개)	규모(석)	운영예산 (천원)	이용자 수 (명)	이용책 수 (권)
마산합포구	3	1,633	3,064,900	1,150,157	464,166
마산회원구	4	1,229	2,681,012	1,961,116	471,368
성산구	3	2,095	5,725,275	1,232,713	757,326
의창구	4	2,301	9,413,116	1,198,062	593,414
진해구	3	908	2,677,628	880,507	446,054
총 계	17	8,166	23,561,931	6,422,555	2,732,328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2) 박물관

- 2019년 기준 창원시에 소재한 박물관은 총 9개소이며, 경상남도 대비 12.9%를 차지함
 - 경상남도 소재 박물관은 국공립 44개소, 사립 21개소, 대학 5개소 등 총 70개소가 소재함

- 창원시 소재 박물관 중 국공립 박물관은 7개소, 대학 박물관은 2개소로 나타남

〈표 3-16〉 창원시 박물관 현황

구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경남	44	21	5	70
창원시	7	-	2	9
비율(%)	15.9%	-	40.0%	12.9%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 창원시 소재 박물관 규모는 총 18,607㎡, 전시물 수는 85,630개이며, 1개소당 평균 면적은 2,067㎡, 1개소당 평균 전시물 수는 9,514개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박물관 수는 진해구 4개소, 의창구·마산합포구 2개소, 성산구 1개소 순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박물관 규모는 마산합포구 6,990㎡로 가장 큰 반면, 성산구 972㎡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박물관 전시물 수는 의창구 45,839개, 마산합포구 24,111개, 진해구 14,390개, 성산구 1,290개 순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박물관이 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7개, 연간 관람객 수 43만명이며, 1개소당 평균 운영 프로그램 0.8개, 1개소당 평균 관람객 수 48,124명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운영 프로그램은 진해구 3개로 가장 많으며,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각각 2개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연간 관람객 수는 진해구 23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성산구 1.1만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표 3-17〉 창원시 행정구역별 박물관 운영 현황

구분	박물관 수	규모(㎡)	전시물 수 (개)	프로그램 수 (개)	연 관람객 수 (명)
마산합포구	2	6,990	24,111	2	62,498
마산회원구	-	-	-	-	-
성산구	1	972	1,290		11,200
의창구	2	3,879	45,839	2	125,682
진해구	4	6,766	14,390	3	233,739
총 계	9	18,607	85,630	7	433,119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3) 미술관

- 2019년 기준 창원시에 소재한 미술관은 총 3개소이며, 경상남도 대비 33.3%를 차지함
 - 경상남도에 소재한 미술관은 국공립 5개소, 사립 4개소 등 총 9개소임
 - 창원시에 소재한 미술관 중 국공립 미술관은 2개소, 사립 미술관은 1개소가 운영 중이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 국공립 미술관은 경상남도 대비 40.0%를 차지하며, 사립 미술관은 25.0%를 차지함

〈표 3-18〉 창원시 미술관 현황

구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경남	5	4	-	9
창원시	2	1	-	3
비율(%)	40.0%	25.0%	-	33.3%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 창원시에 소재한 미술관의 총 규모는 11,421㎡, 작품 수는 31,573개이며, 1개소 당 평균 규모는 3,807㎡, 1개소 당 평균 작품 수는 10,524개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미술관 수는 의창구 2개소, 마산합포구 1개소이며, 마산회원구, 성산구, 진해구는 미술관이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미술관 규모는 의창구 9,514㎡, 마산합포구 1,097㎡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미술관이 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32개이며, 연간 관람객 수는 110,533명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연간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의창구 27개, 마산합포구 5개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연간 미술관 관람객 수는 의창구 88,502명, 마산합포구 22,031명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미술관 현황 분석 결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창원시민은 인구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동일한 박물관 시설에 대비 25% 수준으로 매우 낮음

〈표 3-19〉 창원시 행정구역별 미술관 운영 현황

구분	미술관 수	규모(㎡)	작품 수 (개)	프로그램 수 (개)	연 관람객 수 (명)
마산합포구	1	1,907	8,912	5	22,031
마산회원구	-	-	-	-	-
성산구	-	-	-	-	-
의창구	2	9,514	22,661	27	88,502
진해구	-	-	-	-	-
총 계	3	11,421	31,573	32	110,533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4) 문예회관

- 2019년 기준 창원시에 소재한 문예회관은 총 3개소이며, 경상남도의 13.6%를 차지함

〈표 3-20〉 창원시 문예회관 현황

구분	경상남도	창원시	비율
문예회관	22	3	13.6%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 창원시에 소재한 문예회관의 총 규모는 67,955㎡, 객석 수는 4,377석이며, 1개소 당 평균 규모는 22,651㎡, 1개소 당 평균 객석 수는 1,459석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문예회관 수는 마산회원구·의창구·진해구에 각각 1개소가 소재하며,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는 문예회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규모는 의창구 40,890㎡, 마산회원구 20,040㎡, 진해구 7,0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객실 수는 의창구 40,890석으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반면, 진해구는 540석으로 가장 적은 객실을 보유함
- 창원시 소재 문예회관의 연간 유료 관람객 수는 167,110명이며, 총 이용자 수는 651,929명으로 나타남
 - 1개소 당 연평균 유료 관람객 수는 55,703명이고, 1개소 당 연평균 이용자 수는 217,309명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유료 관람객 수는 의창구 105,773명으로 가장 많으며, 마산회원구 44,103명, 진해구 17,23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총 이용자 수는 의창구 340,396명, 마산회원구 213,683명, 진해구 97,85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문예회관의 연간 총 운영비는 180억원이며, 연간 수입은 15억원으로 나타나 운영비 대비 수익률은 8.3% 수준임
 - 1개소 당 평균 운영비는 60억원, 1개소 당 평균 수입은 5억원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연간 운영비는 의창구 124억원, 마산회원구 45억원, 진해구 12억원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연간 수입은 의창구 10억원, 마산회원구 4억원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문예회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의창구 소재 문예회관이 규모, 개석 수, 유료 관람객 수 등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문예회관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확보할 때 문화예회관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임

〈표 3-21〉 창원시 행정구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

구분	문예회관 수(개)	규모(㎡)	개석 수 (석)	유료 관람객 수(명)	총 이용자 수(명)	연간 운영비 (백만원)	연간 수입 (백만원)
마산합포구	-	-	-	-	-	-	-
마산회원구	1	20,040	1,637	44,103	213,683	4,539	397
성산구	-	-	-	-	-	-	-
의창구	1	40,890	2,200	105,773	340,396	12,396	1,020
진해구	1	7,025	540	17,234	97,850	1,162	80
총 계	3	67,955	4,377	167,110	651,929	18,097	1,497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5) 지방문화원

- 창원시에 소재한 지방문화원 총 3개소이며, 경상남도의 15.0%를 차지함

〈표 3-22〉 창원시 지방문화원 현황

구분	경상남도	창원시	비율
지방문화원	20	3	15.0%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 창원시 소재 지방문화원의 총 규모는 3,029㎡이며, 총 인력 수는 8명이 근무함
 - 지방문화원 1개소 당 평균 규모는 1,0110㎡, 1개소 당 평균 인력 수는 2.7명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 수는 마산합포구·의창구·진해구에 각각 1개소가 운영 중이며, 마산회원구와 성산구는 지방문화원이 소재하지 않음
 -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 규모는 마산합포구 1,509㎡로 가장 큰 반면, 진해구 50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 인력 수는 마산합포구·의창구 각각 3명, 진해구 2명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지방문화원의 총 회원 수는 1,223명, 연간 운영 예산은 11억원, 연간 참여자 수는 60,379명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 1개소 당 평균 회원 수는 408명, 1개소 당 평균 운영비는 3.7억원, 1개소 당 연평균 참여자 수는 20,126명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의 회원 수는 의창구 602명, 마산합포구 401명, 진해구 22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의 운영 예산은 의창구 5.5억원, 마산합포구 2.8억원, 진해구 2.6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의 연간 참가자 수는 의창구 35,000명, 진해구 15,000명, 마산합포구 10,37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창원시 소재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지방문화원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창원시 행정구역별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

구분	지방문화원 수(개)	규모(㎡)	인력 수 (명)	회원 수 (명)	예산 (천원)	연간 참여자 수(명)
마산합포구	1	1,509	3	401	280,348	10,379
마산회원구	-	-	-	-	-	-
성산구	-	-	-	-	-	-
의창구	1	1,016	3	602	549,909	35,000
진해구	1	504	2	220	255,000	15,000
총 계	3	3,029	8	1,223	1,085,257	60,379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6) 문화의 집

- 창원시에 소재한 문화의 집은 총 3개소이며, 경상남도 전체의 20.0%를 차지함

〈표 3-24〉 창원시 문화의 집 현황

구분	경상남도	창원시	비율
문화의 집	15	3	20.0%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 창원시 소재 문화의 집 총 규모는 1,563m²이며,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인력 수는 4명으로 나타남
 - 문화의 집 1개소 당 규모는 521m², 1개소 당 인력 수는 1.3명이 근무함
 - 행정구역별 문화의 집은 진해구 2개소, 마산회원구 1개소가 운영 중이며,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등은 문화의 집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문화의 집 규모는 진해구 802m², 마산회원구 761m²로 나타나며, 근무 인력 수는 진해구 3명, 마산회원구 1명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은 40개, 연간 운영 예산은 2.9억원, 연간 참여자 수는 26,900명으로 나타남
 - 문화의 집 1개소 당 운영 프로그램 13.3개, 1개소 당 운영 예산은 약 1억원, 1개소 당 연간 참여자는 8,967명임
 - 행정구역별 운영 프로그램 수는 마산회원구 23개, 진해구 17개이며, 운영 예산은 마산회원구 1.7억원, 진해구 1.2억원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연간 참여자 수는 진해구 24,900명, 마산회원구 2,000명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문화의 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대비 운영 예산이 매우 낮은 반면, 규모 대비 참여자 수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의 집 연간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수를 검토한 결과 1개 프로그램 당 비용은 752만원(인건비 포함) 수준임

〈표 3-25〉 창원시 행정구역별 문화의 집 운영 현황

구분	문화의 집 수(개)	규모(㎡)	인력 수 (명)	프로그램 수(개)	예산 (천원)	연간 참여자 수(명)
마산합포구	-	-	-	-	-	-
마산회원구	1	761	1	23	171,686	2,000
성산구	-	-	-	-	-	-
의창구	-	-	-	-	-	-
진해구	2	802	3	17	118,872	24,900
총 계	3	1,563	4	40	290,558	26,900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2.2 인구 100만 도시 간 문화시설 비교 분석

- 창원시 문화시설의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와 창원시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함
 -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 문화시설의 공급 규모는 4개 기초자치단 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선정함(박물관, 국립도서관,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 비교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된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활용함

- 창원시와 인구100만 이상 도시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 시설 수에서 창원시는 3위를 차지함
 - 문화시설 수에서는 용인시 1위(42개), 수원시 2위(39개), 창원시 3위(38개)를 차지함
 - 창원시 문화시설 수는 4개 도시의 평균 문화시설 수와 동일한 38개로 평균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비교 분석 결과 창원시는 타 도시에 비해 박물관 및 도서관은 부족하고,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 집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박물관 및 도서관은 4개 도시 평균 이하로 나타나며,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표 3-26〉 인구 100만 대도시 간 문화시설 수 비교 분석

구분	박물관	국립 도서관	도서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평 균	10	0	20	3	3	2	1	38
창원시	9	0	17	3	3	3	3	38
수원시	7	0	26	2	3	1	0	39
고양시	8	1	17	3	3	1	1	34
용인시	15	0	18	5	3	1	0	42

자료 : 「2019 전국 문화시설 기반 총람」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 창원시의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질적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도시의 인구를 적용하여 공급 지수를 산출함

- 2019년 기준 4개 도시의 인구는 수원시 119만명, 고양시 107만명, 용인시 106만명, 창원시 104만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4개 도시 평균 인구는 109만명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공급 지수는 각 지표별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 수를 산출하여 적용함
- 4개 도시 간 문화시설 공급 지수 비교 분석 결과 창원시는 2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공급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는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는 2위를 차지하여 인구 대비 문화시설의 공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표 3-27〉 인구 100만 대도시 간 문화시설 공급 지수 비교 분석

구분	인구	박물관	국립 도서관	도서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평 균	109	0.89	0.02	1.79	0.30	0.27	0.14	0.09	3.51
창원시	104	0.86	0.00	1.63	0.29	0.29	0.29	0.29	3.64
수원시	119	0.59	0.00	2.18	0.17	0.25	0.08	0.00	3.27
고양시	107	0.75	0.09	1.59	0.28	0.28	0.09	0.09	3.19
용인시	106	1.42	0.00	1.70	0.47	0.28	0.09	0.00	3.96
창원순위	4	2	2	3	2	1	1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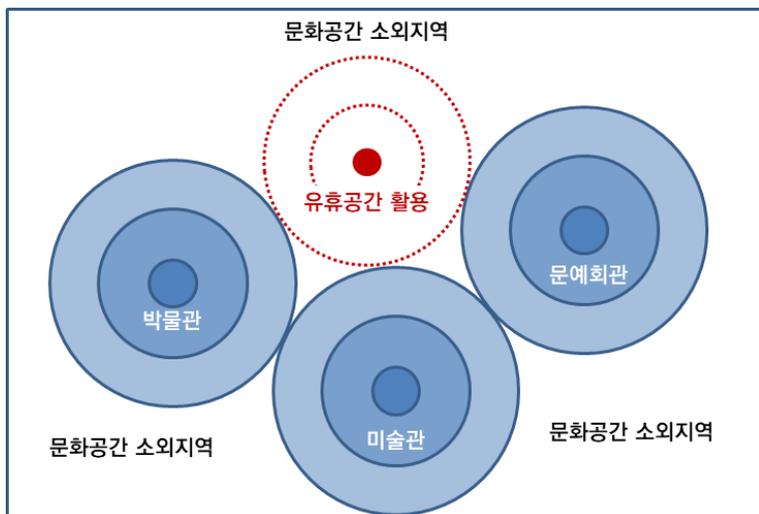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2.3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1) 분석의 개요

-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의 수용 범위를 통해 문화공간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소외지역에 소재한 유희공간의 유형을 도출함
 - 공급적 측면에서 문화공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여 문화시설 밀집지역과 소외지역을 파악함
 - 문화시설 소외지역 내 유희공간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유형을 도출함
 -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 범위와 문화소외 지역 유희공간 소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GIS 분석을 실시함

〈그림 3-7〉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개념도



2) 분석의 가정 및 전제

- 문화공간(시설)은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예산 또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시설임
 - 문화공간(시설)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유재와 달리 공공적 성격을 지닌 준공공재 혹은 공공재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일상에서 향유하는 생활 서비스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에서는 문화공간(시설)을 사회적 기능적 측면에서는 발전적 서비스, 서비스의 필수성 측면에서는 선택적 서비스, 서비스의 수요 계층 측면에서는 중간계층 이상을 위한 서비스로 규정함(용인시, 2017)
 - 개인의 정신적, 지적, 육체적 잠재력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일상적 서비스 이지만 경찰, 소방 등 보호적 서비스와는 구별됨
 - 소방, 경찰, 의무교육 등과 같은 필수적 서비스는 아니며, 주민이 이용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적 서비스임
 - 시민의 문화생활 및 여가를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적 서비스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생활서비스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님
- 이러한 문화공간(시설)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적정 수준의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문화공간(시설)은 일반생활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소득 증대와 문화향유 증대는 비례적 관계를 가지며, 불균형 시 삶의 질이 하락하여 지자체는 적정 수준의 문화공간 조성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표 3-28〉 문화·체육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구별

기능	유형	해당 서비스 사례
사회적 기능	일상적 서비스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도로교통
	보호적 서비스	경찰, 소방, 법집행, 위생
	발전적 서비스	문화, 체육, 교육, 공원
	사회적 최저수준 보장 서비스	공공부조, 병원, 직업훈련, 공공주택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필수적 서비스	소방, 경찰, 교통, 의무교육, 의료, 장애인 복지 등
	선택적 서비스	문화, 체육
서비스의 수요계층	저소득층 수요 대응 서비스	공공주택, 영세민 보호
	중간계층 이상 수요 대응 서비스	문화, 체육
	일반 수요 대응 서비스	경찰, 소방, 위생, 상하수도, 가로등 등

자료 : 용인시(2017), 문화체육시설 설치 기준 및 효율적 확충 계획.

- 문화공간(시설)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됨에 따라 접근성 및 규모가 가장 핵심적 요인임
- 문화공간의 접근성 및 규모는 결국 지역주민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고, 이는 역설적으로 공급적 측면에서 문화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함

- 지역주민이 문화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문화공간이 지역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활권으로 정의함
- 생활권에 대해 연구자들 간 일치된 개념이 없으며, 도시의 규모, 인구, 도시 중심부로부터 거리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됨
 - 단,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생활권을 근린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등으로 세분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공간(시설)의 공간적 수용범위를 근린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문화공간의 반경으로부터 거리를 가정함
 - 근린생활권은 반경 700m, 소생활권은 반경 2km, 중생활권은 반경 5km, 대생활권 반경 9km를 적용함
- 또한, 문화공간(시설)은 이용자의 거리조락(Distance Decay)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문화시설 이용자의 거리조락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 거리조락(Distance Decay)은 공급시설과 이용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간 및 이동비용 등으로 거리마찰이 증가하여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문화공간은 규모 및 이용요금에 따라 이용률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 문화공간 크기 및 유형에 따른 이용자 선호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용요금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3) 분석의 대상

-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을 위해 총 19개 유형의 문화시설을 5개로 범주화함
 - 5개 범주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공간 분류기준을 적용함
 - 전시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구성함
 - 공연시설은 소공연장, 종합공연장, 영화관으로 구성함
 - 지역문화복지시설은 마을회관, 문화체육센터, 복지회관, 생활문화센터, 지역자치센터, 청소년 활동시설로 구성함
 - 문화보급전수시설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전수교육관, 지방문화원, 지역미디어센터, 평생학습센터로 구성함
 -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함

〈표 3-29〉 문화공간 수용력 분석 대상

구분	문화시설 유형
전시시설(2)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3)	소공연장, 종합공연장, 영화관
지역문화복지시설(6)	마을회관, 문화체육센터, 복지회관, 생활문화센터, 지역자치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6)	문예회관, 문화의 집, 전수교육관, 지방문화원, 지역미디어센터, 평생학습센터
도서관(2)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간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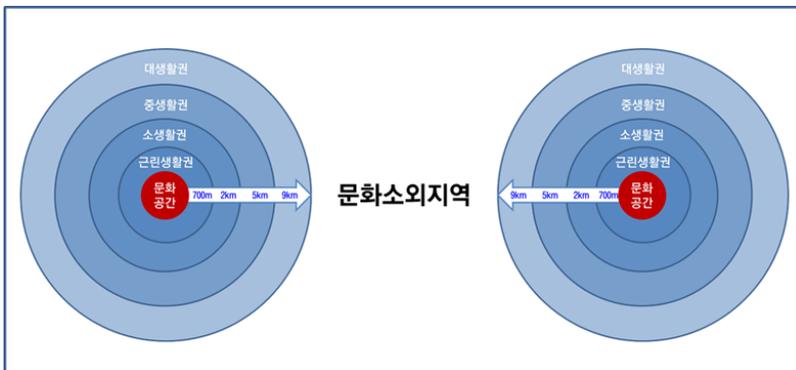
4) 분석의 방법

- 창원시 문화공간의 수용 범위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적용하여 산출함
 - 문화공간 수용 범위는 앞서 제시한 가정과 전제에 따라 거리를 기준으로 생활권 범위를 적용함
 - 생활권 범위는 근린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범위는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700m, 반경 2km, 반경 5km, 반경 9km를 적용함

〈표 3-30〉 문화공간 수용력 범위

구분	문화시설	거리
근린생활권(4)	마을회관, 복지회관, 지역자치센터, 문화의 집	반경 700m
소생활권(3)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반경 2km
중생활권(4)	소공연장, 영화관,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체육센터, 생활 문화센터	반경 5km
대생활권(8)	종합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전수교육관, 지역미디어센터, 공공도서관	반경 9km

〈그림 3-8〉 창원시 문화공간 수용력 범위 개념도



5) 분석의 결과

(1) 전시시설 수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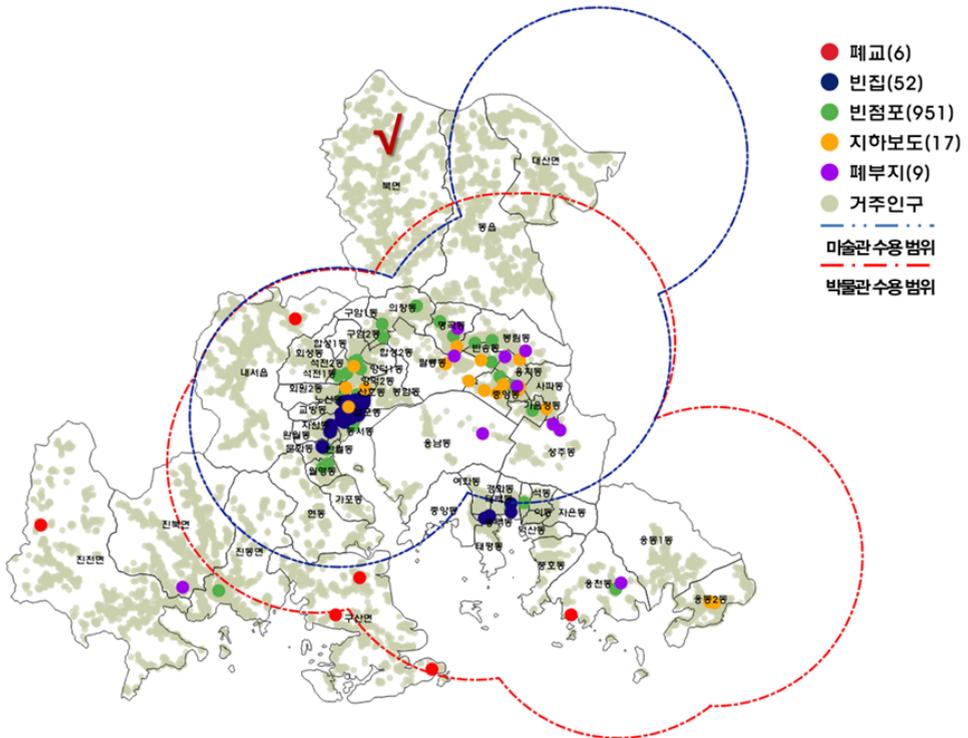
- 전시시설 수용 범위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반경 9km를 적용함
- 박물관 수용 범위는 창원시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며, 문화공간 소외지역은 상대적으로 의창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진해지역은 진해구 전체가 박물관 수용 범위에 포함
 - 마산지역은 진전면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며, 진북면과 진동면, 구산면 등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창원지역은 북면과 대신면이 상대적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미술관 수용 범위는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진해구에 절대 소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진해지역은 중앙동, 여좌동, 경화동, 석동을 제외한 지역이 미술관 수용 범위에서 벗어나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창원지역은 북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미술관 수용 범위에 포함되며, 마산지역은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등이 상대 소외지역, 진전면은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전시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마산합포구는 문화공간 소외지역 내 유희공간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은 폐교, 폐부지, 빈점포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의창구 북면은 문화공간 소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이 소재하지 않아 문화공간 조성 시 부지확보 및 건축물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1〉 전시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지역명	절대 소외지역	상대 소외지역
마산지역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창원지역	-	북면
진해지역	-	-

〈그림 3-9〉 창원시 전시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2) 전시시설 수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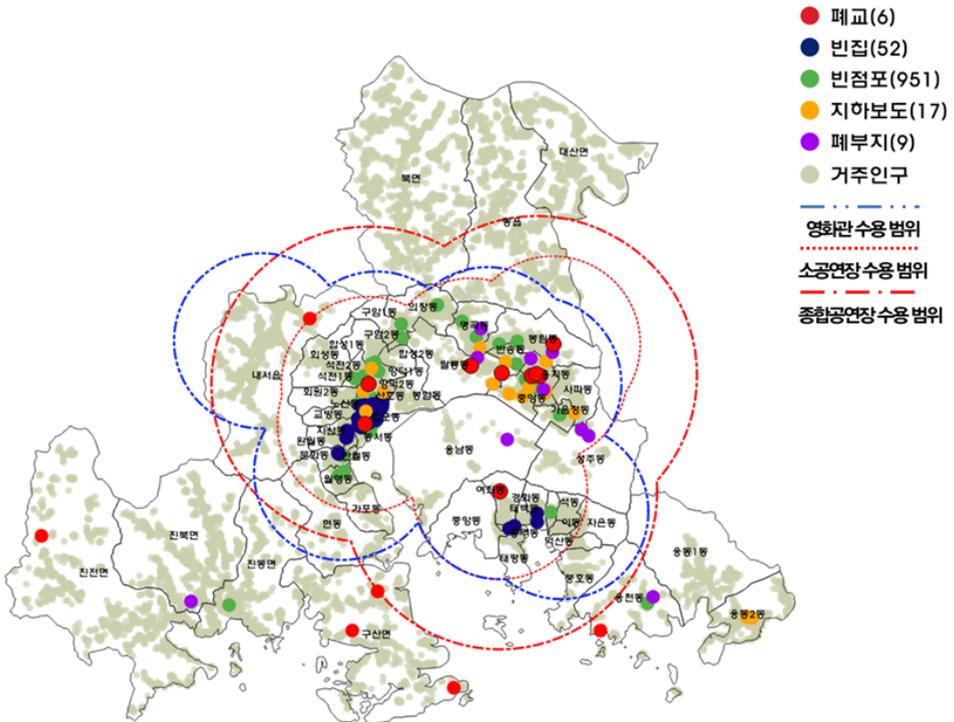
- 공연시설 수용 범위는 종합공연장 9km, 영화관·소공연장 5km를 적용함
- 종합공연장의 수용 범위는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심지역 전체를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가 절대 소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산지역은 외곽지역인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등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창원지역은 북면과 동읍이 상대 소외지역, 대산면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진해지역은 웅동1동이 상대 소외지역, 웅동2동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소공연장의 수용 범위는 종합공연장과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가 절대 소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산지역은 외곽지역인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이 절대 소외지역, 현동 및 내서읍은 상대 소외지역임
 - 창원지역은 북면과 대산면이 절대 소외지역, 동읍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진해지역은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등이 절대 소외지역, 자은동과 덕산동은 상대 소외지역임
- 영화관의 수용 범위 역시 종합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수용 범위와 유사하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가 절대 소외지역이 많은 특징을 나타냄

- 마산지역은 외곽지역인 진전면, 진북면 구산면 등이 절대 소외 지역, 진동면은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창원지역은 외곽지역인 북면과 대산면이 절대 소외지역, 동읍은 상대 소외지역임
- 진해지역은 외곽지역인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이 절대 소외 지역으로 나타남

〈표 3-32〉 공연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지역명	절대 소외지역	상대 소외지역
마산지역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창원지역	대산면	북면, 동읍
진해지역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

〈그림 3-10〉 창원시 공연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3) 지역문화복지시설 수용 범위

- 지역문화복지시설의 수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마을회관·복지회관·지역자치센터 반경 700m, 문화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청소년활동시설 반경 5km를 적용함
- 마을회관 수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인 창원시 외곽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수용 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은 마산 내서읍, 창원 북면 및 대산면, 진해 웅동1동으로 나타남
- 복지회관 수용 범위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산지역의 수용 범위는 내서읍, 구암2동, 문화동, 월영동으로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은 문화공간 소외지역임
 - 창원지역의 수용 범위는 용지동을 제외한 지역은 문화공간 소외 지역이며, 진해지역은 덕산동, 풍호동을 제외한 지역이 문화공간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지역자치센터 수용 범위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일하게 창원 봉림동과 진해 자은동은 수용 범위를 벗어나면서 문화공간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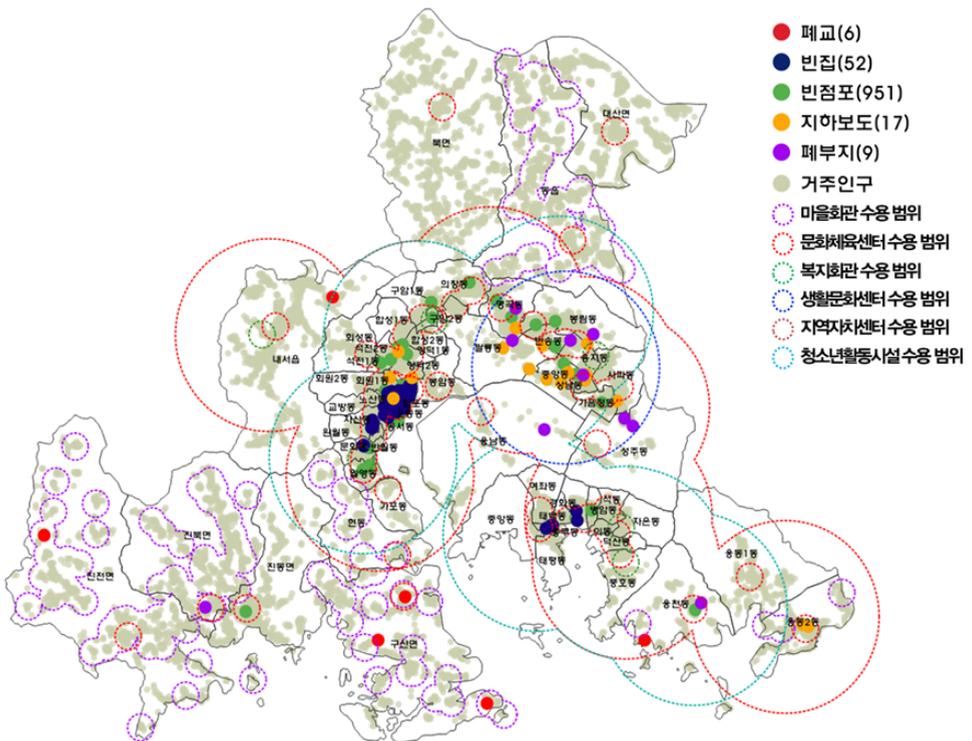
- 문화체육센터 수용 범위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에 문화공간 소외지역이 많은 특징을 나타냄
 - 마산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구산면 등이 절대 소외지역, 진동면은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창원지역은 대산면이 절대 소외지역, 북면과 동읍은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진해지역은 중앙동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생활문화센터 수용 범위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용 범위는 명곡동, 팔용동, 반송동, 봉림동, 중앙동, 용지동, 사파동, 가음정동, 웅담동, 성주동이며, 그 외 지역은 문화공간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시설 수용 범위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마산지역에 문화공간 소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산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구산면 등이 절대 소외지역, 내서읍과 현동은 상대 소외지역임
 - 창원지역은 대산면이 절대 소외지역, 북면, 동읍, 성주동, 가음정동이 상대 소외지역임
 - 진해지역은 웅동1동과 웅동2동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복지시설 수용 범위를 분석한 결과 마산지역의 진동면, 창원지역의 북면 및 대산면이 문화 소외지역이며, 특히 북면과 대산면은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지역문화복지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지역명	절대 소외지역	상대 소외지역
마산지역	-	진동면
창원지역	-	북면, 대산면
진해지역	-	-

〈그림 3-11〉 창원시 지역문화복지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4)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용 범위

- 문화보급전수시설의 수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문화의 집 반경 700m, 평생학습센터 반경 2km, 문예회관·전수교육관·지방문화원·지역미디어센터 반경 9km를 적용함
- 문화의 집 수용 범위는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산회원구의 수용 범위는 내서읍이며, 이외 지역은 수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진해구의 수용 범위는 경화동, 병암동, 태백동, 응동 2동으로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은 포함되지 않음
- 평생학습센터의 수용 범위는 의창구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마산회원구와 성산구의 일부 지역이 수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창구의 수용 범위는 북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북면은 절대 소외지역임
 - 마산회원구의 수용 범위는 구암1동, 구암2동을 포함하며, 그 외 지역은 절대 소외지역임
 - 성산구의 수용 범위는 응남동 및 성주동으로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은 절대 소외지역임

- 문예회관의 수용 범위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가 가장 많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진전면과 진북면이 절대 소외지역, 진동면, 구산면, 현동 등이 상대 소외지역임
 - 의창구는 대신면이 절대 소외지역이며, 북면 및 동읍은 상대 소외지역임
 - 진해구는 용동2동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며, 용동 1동과 웅천동은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전수교육관의 수용 범위는 마산회원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진전면이 절대 소외지역이며,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은 상대 소외지역임
 - 의창구는 의창동과 명곡동, 북면의 일부 지역이 수용범위에 포함된 상대 소외지역인 반면, 그 외 지역은 절대 소외지역임
 - 성산구는 웅남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은 절대 소외지역임
 - 진해구 전체는 전수교육관 수용 범위를 벗어난 절대 소외지역임
- 지방문화원의 수용 범위는 문예회관과 유사한 형태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에 소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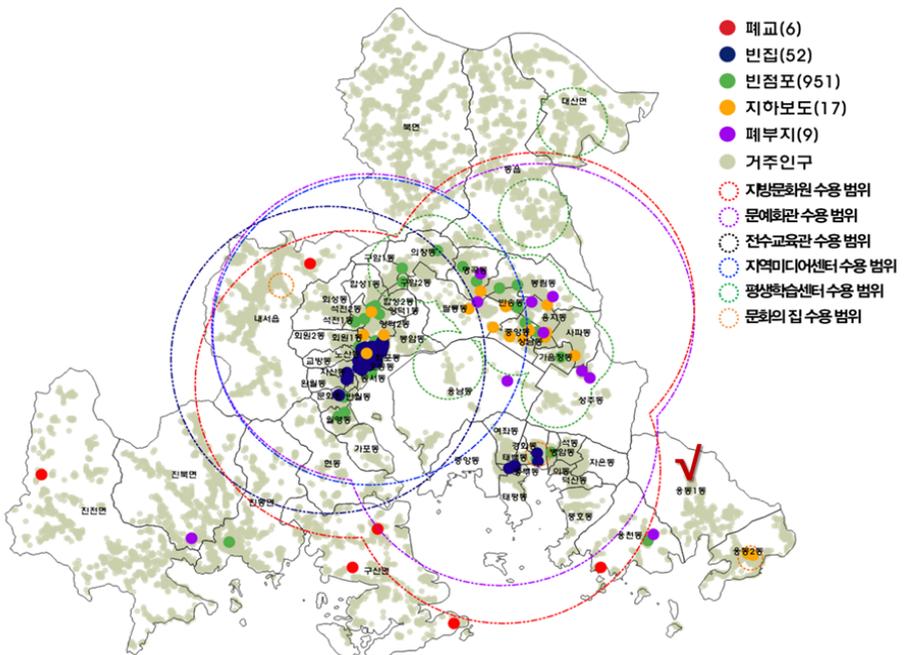
- 마산합포구는 진전면이 절대 소외지역이며,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등은 상대 소외지역임
 - 의창구는 대산면이 절대 소외지역이며, 북면과 동읍은 상대 소외 지역으로 나타남
 - 진해구는 웅동 2동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며, 웅동 1동과 웅천동은 상대 소외지역임
- 지역미디어센터의 수용 범위는 마산회원구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산합포구·의창구·성산구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진전면, 진북면, 구산면 등이 절대 소외지역이며, 진동면과 현동은 상대 소외지역임
 - 의창구는 대산면, 사과동, 가음정동, 성주동 등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고 봉림동 및 용지동 등은 상대 소외지역임
 - 성산구는 웅남동과 중앙동이 일부 포함되어 상대 소외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진해구는 도시 전체가 지역미디어센터의 수용 범위를 벗어난 절대 소외지역임
- 창원시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용력 분석 결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수용 범위가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은 소외됨

- 문화보급전수시설로부터 소외받은 지역은 마산합포구, 의창구 진해구 등으로 나타나며, 마산합포구와 진해구는 소외지역 내 유희공간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에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은 폐교, 폐부지, 빈점포 등이며, 진해구에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은 지하보도, 폐부지, 빈점포 등으로 나타남

〈표 3-34〉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용 범위 분석 결과

지역명	절대 소외지역	상대 소외지역
마산지역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창원지역	-	북면, 대신면
진해지역	웅동1동	웅천동, 웅동2동

〈그림 3-12〉 창원시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용 범위 현황도



(5) 도서관 수용 범위

- 도서관 수용 범위는 작은 도서관 2km, 공공도서관 9km를 적용함
- 작은 도서관 수용 범위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모두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가 가장 많이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진전면과 구산면이 절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며, 가포동, 현동, 내서읍 등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의창구는 대신면이 절대 소외지역이며, 동읍, 북면, 팔용동 등이 상대 소외지역임
 - 성산구는 웅남동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나고, 진해구는 웅천동이 절대 소외지역, 웅동1동 및 웅동2동이 상대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공공도서관의 수용 범위는 창원시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일부 지역이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진전면과 구산면이 상대 소외지역이며, 의창구는 북면, 동읍, 대신면이 상대 소외지역임
- 도서관 수용 범위 분석 결과 창원시는 대신면 북쪽방향, 진전면 서쪽방향, 구산면 남쪽방향에 위치한 외곽지역이 도서관 수용 범위를 벗어난 소외지역으로 나타남
- 도서관 소외지역 중 마산합포구 진전면과 구산면은 유휴공간으로 폐교 활용 가능하며, 의창구 대신면은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3.1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창원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공공문화시설의 유형 및 형태를 파악하고, 유희공간 활용 대한 의견 및 문화시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함
-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음
 - 조사시기 : 2020년 10월 09일 ~ 2020년 10월 30일
 - 조사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설문조사
 - 조사규모 : 총 1,000명
 - 표집방법 : 인구수 비례 층화표본추출

2) 자료 처리

-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조사에 대한 자료 처리는 검증, 코딩, 데이터 크리닝, 데이터 분석 등 총 4단계로 구성함
 - 데이터 검증(Editing) :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 데이터 코딩(Coding) : 설문내용의 부호와 및 자료 입력

-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데이터 분석 : SPSS 20.0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

〈그림 3-14〉 자료처리 프로세스



3) 자료 분석

-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의 자료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척도분석 등을 적용함
 -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 응답자별 설문내용 빈도 및 분포표상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상대적 백분율, 응답누적 빈도 등을 제시함
 -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 서로 다른 항목 변수의 범주를 교차시켜 교차된 집계 분석표를 통해 두 변수간의 상호 독립성이나 관련성 또는 개연성의 정도를 분석함
 - 척도분석(Scale analysis) : 일반적으로 산재된 응답 빈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고, 각 항목별로 5점 척도 평균을 활용함

3.2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내용

-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의 내용은 문화시설 이용실태, 유희공간 의견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함
 - － 문화시설 이용실태는 공공문화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지역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함
 - － 유희공간 의견조사는 유희공간 인지여부, 유희공간 유형, 문화적 활용 찬반의견, 활용 형태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함
 - －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거주지,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함

〈표 3-36〉 시민의견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문화시설 이용실태	전시·공연·지역문화복지·문화보급·도서관인지여부 및 이용실태
	문화시설 이용 횟수 / 문화시설 이용 지역
	문화시설 이용 이유 / 문화시설 미이용 이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가장 만족스러운 문화시설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화시설
	문화시설 이용 전반적 만족도
	부족한 문화시설
유희공간 의견조사	지역 유희공간 인지여부
	지역 유희공간 유형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찬반의견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형태
인구통계학적 특성	거주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가구월평균 소득

3.3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창원시민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은 <표 3-35>와 같이 나타남

<표 3-37>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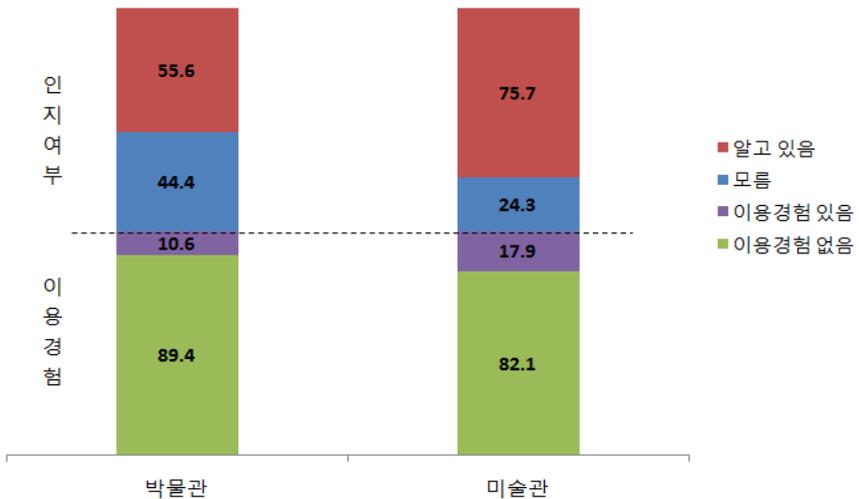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77	47.7	학력	중졸이하	43	4.3
	여성	523	52.3		고졸	492	49.2
연령	20대	147	14.7		대졸	426	42.6
	30대	162	16.2		대학원 졸	39	3.9
	40대	292	29.2	직업	농업/임업/어업	17	1.7
	50대	256	25.6		자영업	117	11.7
	60대 이상	139	13.9		판매/서비스직	136	13.6
	무응답	4	0.4		기술직	120	12.0
	거주지	마산합포구	166		16.6	사무직/관리직	195
마산회원구		194	19.4		전문직	107	10.7
의창구		208	20.8		주부	170	17.0
성산구		244	24.4	학생	93	9.3	
진해구		188	18.8	기타	45	4.5	
결혼 여부	기혼	748	74.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85	8.5
	미혼	252	25.2		200-300만원 미만	311	31.1
자녀수	1명	213	21.3		300-400만원 미만	349	34.9
	2명	407	40.7		400-500만원 미만	139	13.9
	3명 이상	114	11.4		500-600만원 미만	71	7.1
	무응답	266	26.6		600만원 이상	45	4.5
전체						1,000	100.0

2)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 실태

(1) 전시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 전시시설에 대한 창원시민의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시시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시시설 인지도 조사결과 미술관은 응답자의 75.7% 알고 있다고 응답, 박물관은 55.6%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반면, 미술관 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7.9%만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박물관은 10.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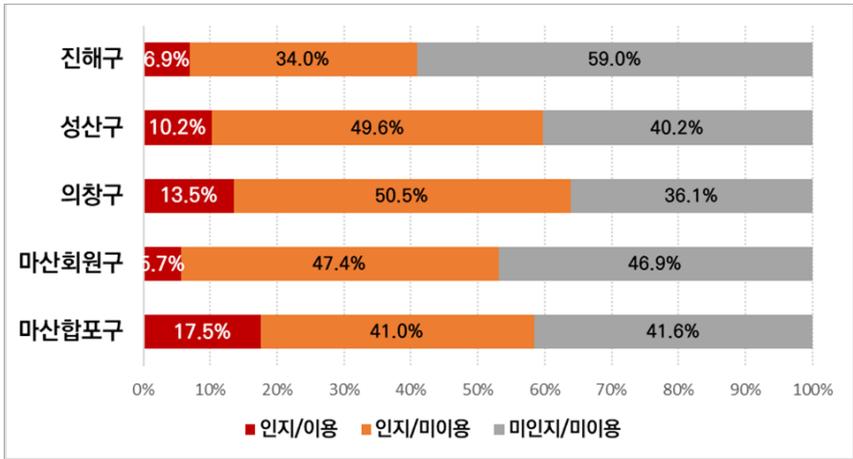
〈그림 3-15〉 전시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 전시시설별 이용률은 박물관의 경우 마산합포구 1위, 미술관은 의창구가 1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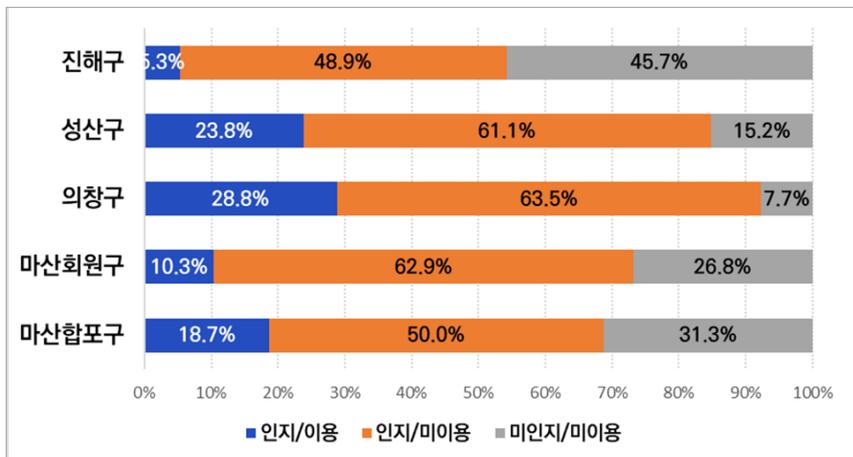
- 박물관 이용 비율은 마산합포구 17.5%, 의창구 13.5%, 성산구 10.2%, 진해구 6.9%, 마산회원구 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행정구역별 박물관 인지도 및 이용률



- 미술관 이용 비율은 의창구 28.8%, 성산구 23.8%, 마산합포구 18.7%, 마산회원구 10.3%, 진해구 5.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7〉 행정구역별 미술관 인지도 및 이용률



(2) 공연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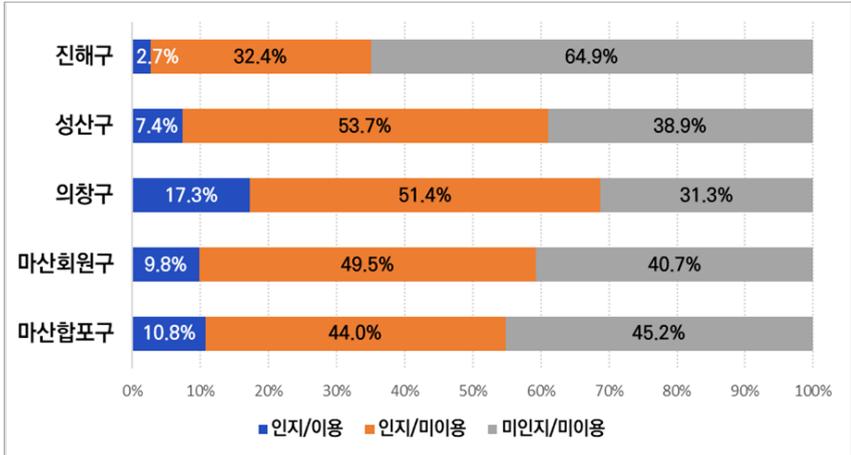
- 창원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주 이용하는 공연시설 1위는 영화관으로 나타남
 - 종합공연장 인지도는 65.8%이며, 이용률은 11.1%로 나타남
 - 소공연장 인지도는 56.4%이며, 이용률은 9.6%로 나타남
 - 창원시민은 영화관을 제외한 공연시설에 대해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18〉 공연시설 인지도 및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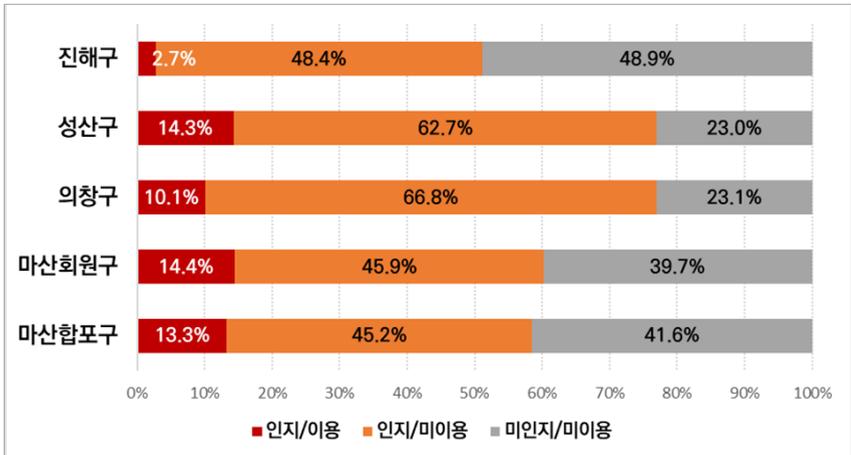
- 소공연장과 영화관 이용률은 의창구가 1위를 차지하였고, 종합공연장 이용률은 마산회원구가 1위를 차지함
 - 소공연장 이용률은 의창구 17.3%, 마산합포구 10.8%, 마산회원구 9.8%, 성산구 7.4%, 진해구 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 행정구역별 소공연장 인지도 및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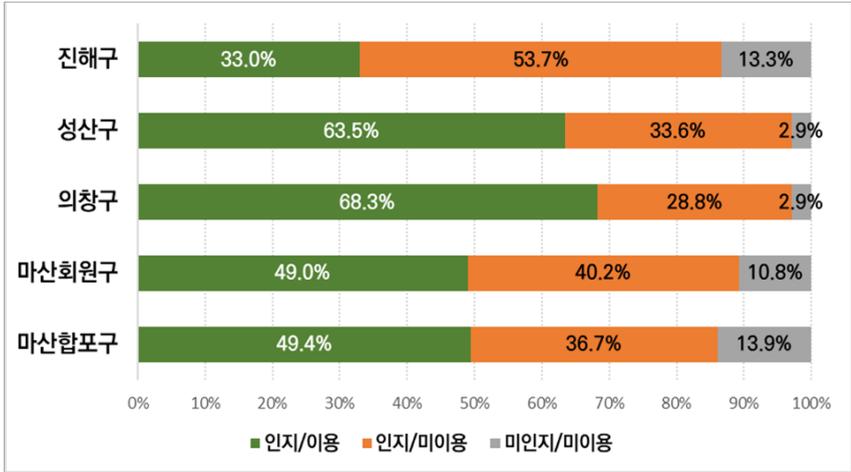
- 종합공연장 이용률은 마산회원구 14.4%, 성산구 14.3%, 마산합포구 13.3%, 의창구 10.1%, 진해구 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0〉 행정구역별 종합공연장 인지도 및 이용률



- 영화관 이용률은 의창구 68.3%, 성산구 63.5%, 마산합포구 49.4%, 마산회원구 49.0%, 진해구 33.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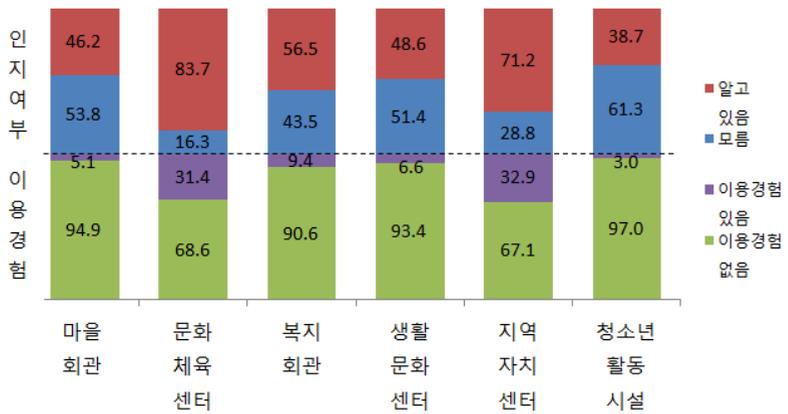
〈그림 3-21〉 행정구역별 영화관 인지도 및 이용률



(3) 지역문화복지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 창원시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문화복지시설 1위는 문화체육 센터,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 1위는 지역자치센터로 나타남
 -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 생활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은 창원시민의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함
- 문화체육센터와 지역자치센터를 제외한 타 문화복지시설의 이용률은 10%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지역문화복지시설 가운데 청소년활동시설,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복지회관 등은 창원시민의 90% 이상이 이용한적이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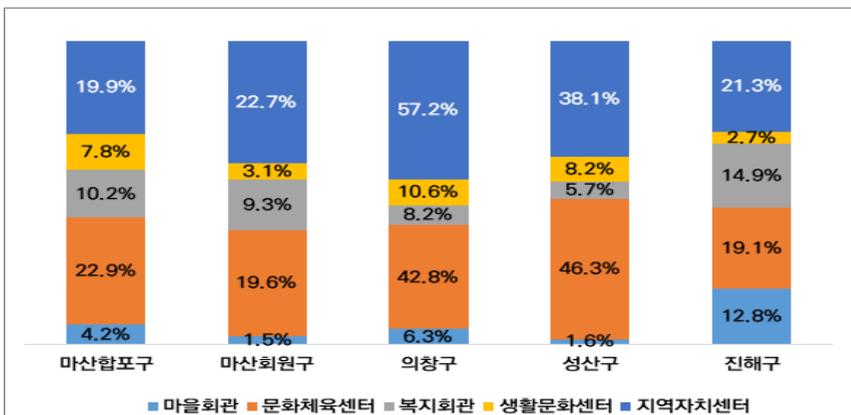
〈그림 3-22〉 지역문화복지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 행정구역별 지역문화복지시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 소재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진해구는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산구는 문화체육시설 이용률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의창구는 지역자체센터 · 생활문화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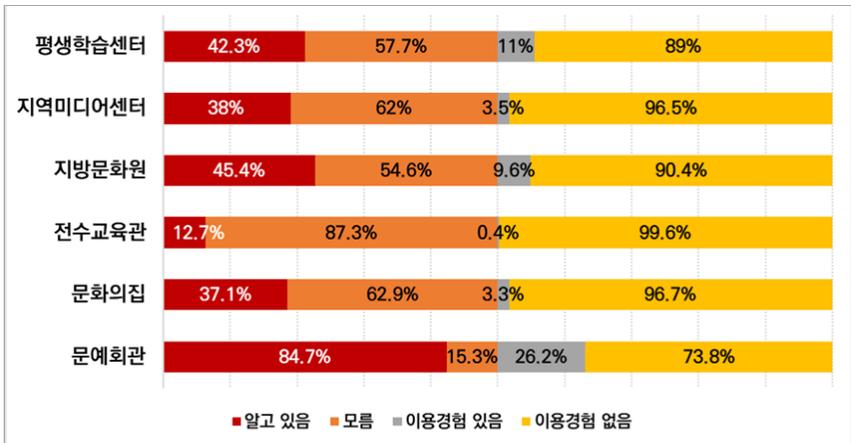
〈그림 3-23〉 행정구역별 지역문화복지시설 이용률



(4) 문화보급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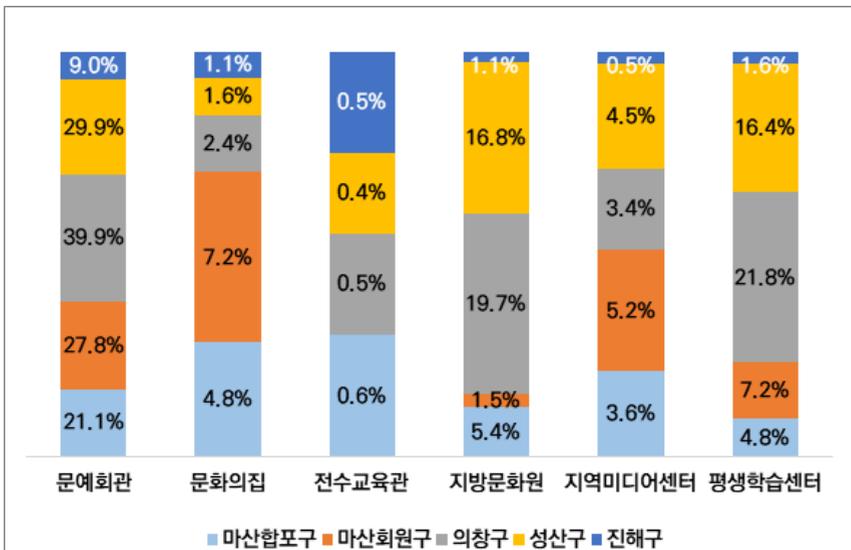
- 문화보급시설 가운데 창원시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시설은 문예회관(84.7%)으로 나타남
 - 문화보급시설 인지도는 문예회관 84.7%, 지방문화원 45.4%, 평생학습센터 42.3%, 지역미디어센터 38%, 문화의 집 37.1%, 전수교육관 12.7% 순으로 나타남
 - 문화보급시설 이용률은 문예회관 26.2%, 평생학습센터 11%, 지방문화원 9.6%, 지역미디어센터 3.5%, 문화의 집 3.3%, 전수교육관 0.4% 순으로 나타남
- 문화의 집 · 전수교육관 · 지방문화원 · 지역미디어센터는 창원시민의 90% 이상이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문화보급시설 가운데 전수교육관은 응답자의 99.6%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이용률이 낮은 시설임

〈그림 3-24〉 문화보급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행정구역별로는 진해구와 성산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문화보급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의창구는 문화예회관, 지방문화원, 평생학습센터 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마산회원구는 문화의 집과 지역미디어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전수교육관 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진해구와 성산구는 타 지역 대비 문화보급시설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시설은 없으며, 특히 진해구는 모든 문화보급시설에서 이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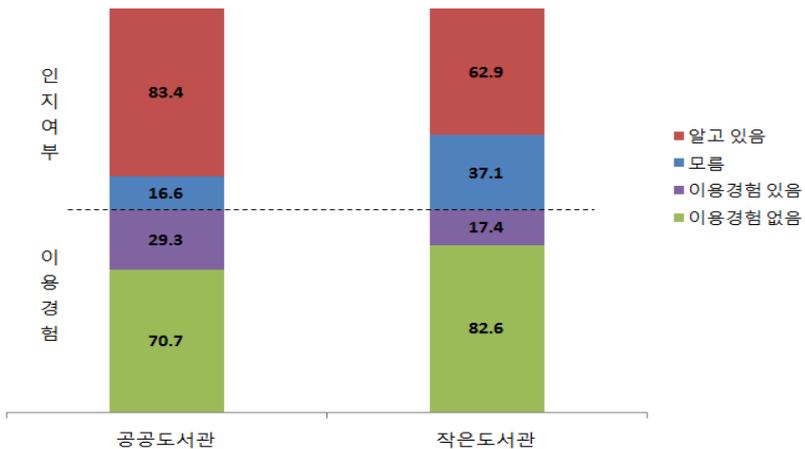
〈그림 3-25〉 행정구역별 문화보급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5) 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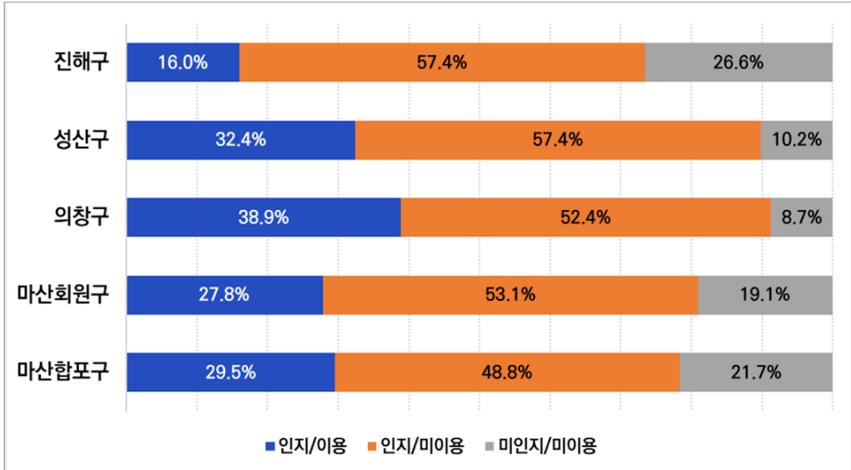
- 창원시민은 도서관을 잘 알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민의 83.4%는 공공도서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9.3%로 낮게 나타남
 - 창원시민의 62.9%는 작은 도서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17.4%로 낮게 나타남

〈그림 3-26〉 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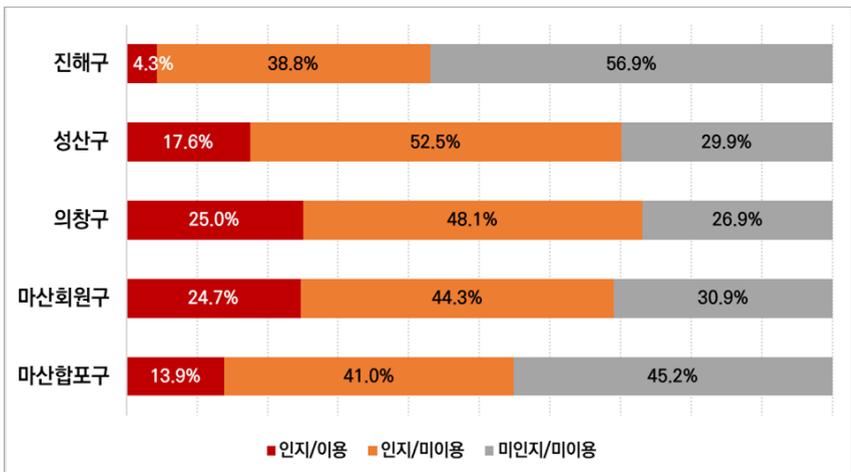
- 행정구역별 도서관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진해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낮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의창구 38.9%, 성산구 32.4%, 마산합포구 29.5%, 마산회원구 27.8%, 진해구 16.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7〉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행정구역별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의창구 25.0%, 마산회원구 24.7%, 성산구 17.6%, 마산합포구 13.9%, 진해구 4.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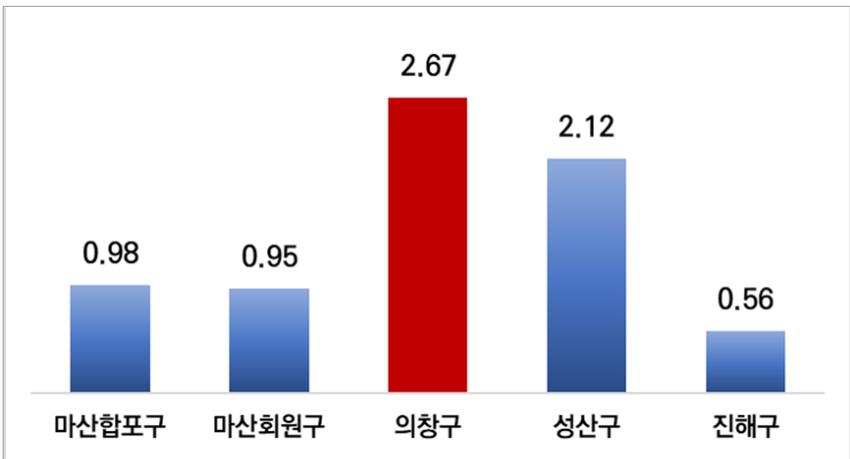
〈그림 3-28〉 행정구역별 작은도서관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6) 문화시설 이용횟수

- 창원시민의 월간 문화시설 이용횟수는 1.53회로 나타나며, 행정 구역별 문화시설 이용횟수에 대한 편차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의창구 주민의 월간 이용회수는 2.67회로 5개 행정구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해구 주민의 월간 이용횟수는 0.56회로 의창구 대비 약 5배 차이가 나타남
 - 의창구와 성산구를 제외한 타 지역 주민의 월간 이용횟수는 1회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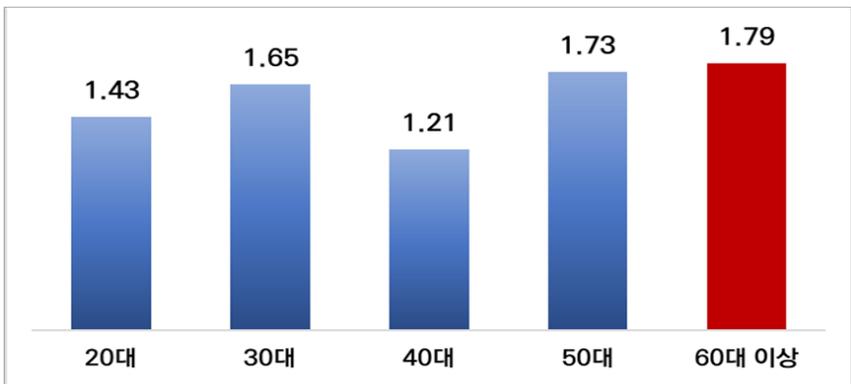
〈그림 3-29〉 행정구역별 월간 문화시설 이용횟수(회)



- 성별 문화시설 이용횟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월간 문화시설 이용횟수는 2.05회, 남성의 월간 이용횟수는 0.96회로 약 2배 이상 여성의 이용횟수가 높음

- 연령별 문화시설 이용횟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60대의 월간 이용횟수가 1.79회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월간 이용횟수는 60대 이상 1.79회, 50대 1.73회, 30대 1.65회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0〉 연령대별 월간 문화시설 이용횟수(회)



(7) 문화시설 이용 지역 및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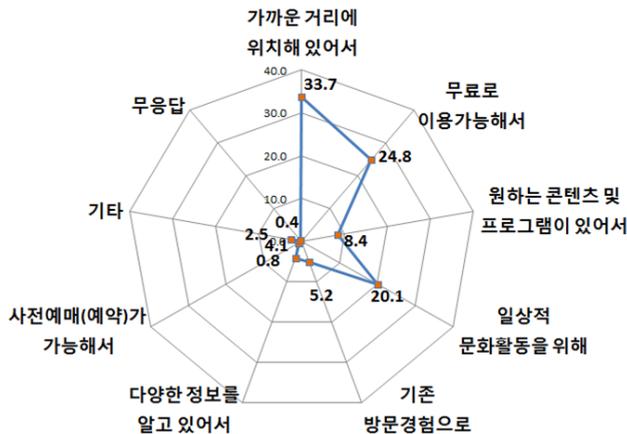
- 문화시설 이용지역을 분석한 결과 창원시민은 거주지역 내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민의 85%는 행정구역 내 소재한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창원시민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마산-창원, 창원-진해, 진해-마산 간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진해구는 주민의 98.9% 행정구역을 벗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8〉 문화시설 이용 지역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전체
마산합포구	86.1%	9.3%	-	0.8%	0.5%	16.4%
마산회원구	9.0%	86.6%	1.4%	2.0%	-	19.1%
의창구	4.2%	0.0%	88.5%	7.8%	-	21.0%
성산구	-	3.6%	10.1%	86.9%	-	24.0%
진해구	-	0.5%	-	2.0%	98.9%	19.2%
무응답	0.6%	-	-	0.4%	0.5%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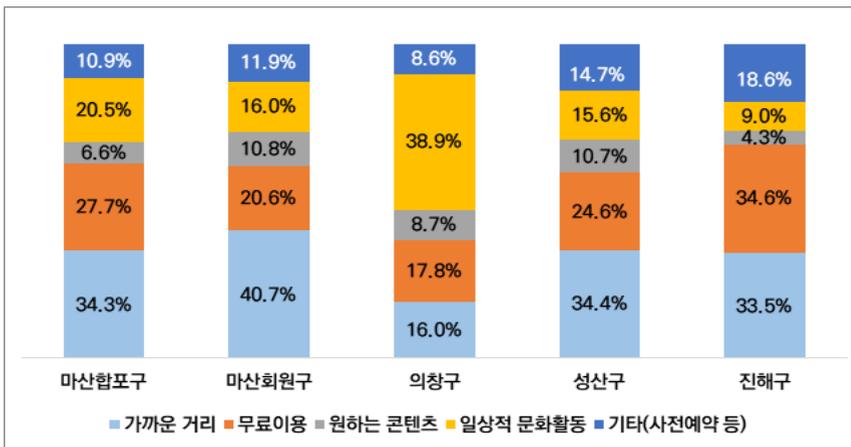
- 창원시민의 문화시설 3대 결정 요인은 접근성, 경제성, 일상성으로 나타남
- 창원시 소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주요 원인 1위는 가까운 거리 위치(33.7%), 2위는 무료 이용(24.8%), 3위는 일상적 문화활동(2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1〉 창원시 소재 문화시설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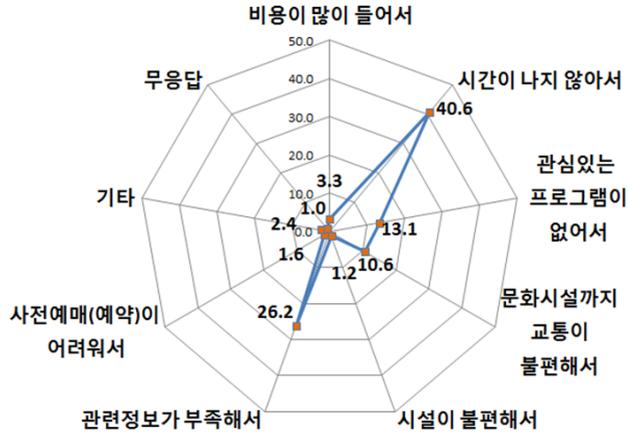
-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이용 결정 요인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성산구의 경우 접근성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의창구는 일상성, 진해구는 경제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함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성산구는 가까운 거리, 무료이용, 일상적 문화활동 순으로 나타남
 - 의창구는 일상적 문화활동, 가까운 거리, 무료이용 순으로 나타남
 - 진해구는 무료이용, 가까운 거리, 일상적 문화활동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2〉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결정 요인



- 창원시에 소재한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대 요인은 시간성, 정보성, 콘텐츠로 나타남
 - 창원 소재 문화시설 미이용 주요 원인으로 1위 시간부족(40.6%), 2위 정보부족(26.2%), 3위 관심 콘텐츠 부재(13.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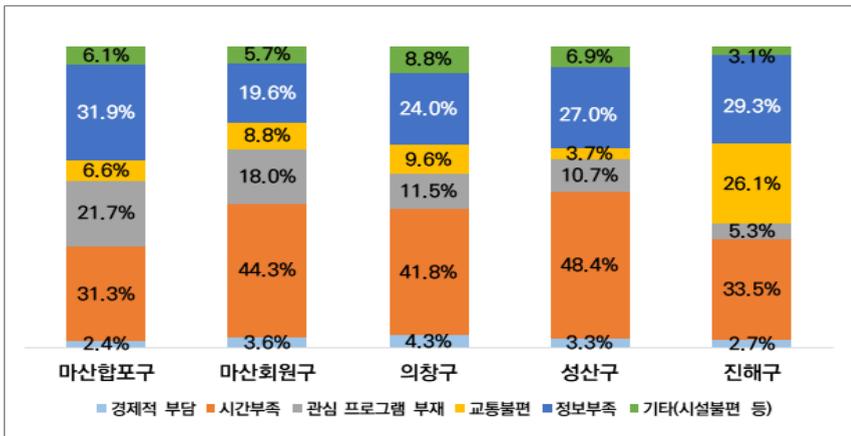
〈그림 3-33〉 창원시 소재 문화시설 미이용 결정 요인



○ 창원시 5개 행정구역 모두 시간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함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창구·성산구는 미이용 요인으로 시간 부족, 정보부족, 관심 프로그램 부재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진해구는 교통불편, 시간부족, 정보부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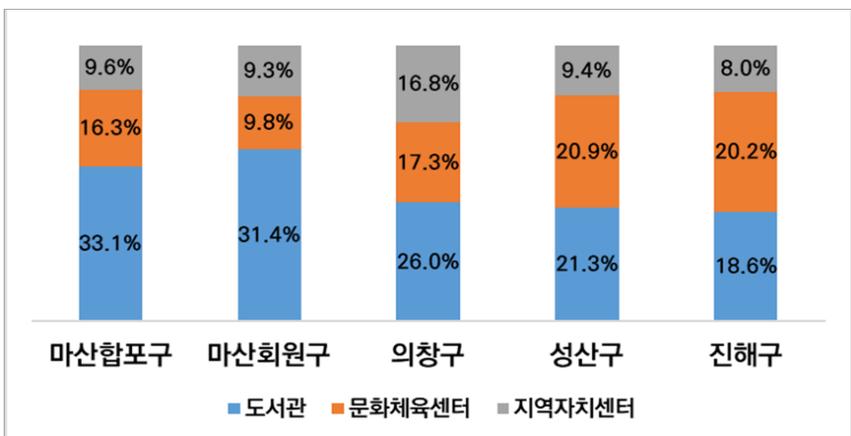
〈그림 3-34〉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미이용 원인



(8)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창원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1위는 도서관(25.7%)으로 나타남
 - 5개 행정구역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지역자치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는 마산합포구 거주시민의 도서관 이용률 33.1%로 가장 높은 반면, 진해구 거주시민의 도서관 이용률은 18.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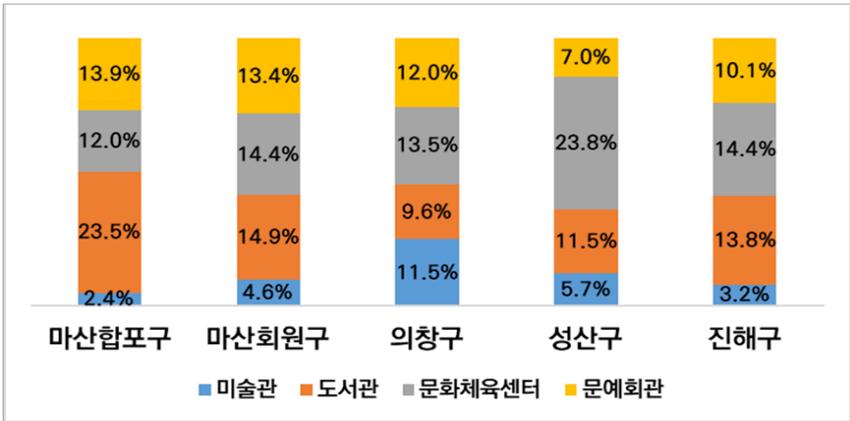
〈그림 3-35〉 행정구역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 창원시민이 가장 만족하는 문화시설 1위는 문화체육센터(16.1%)로 나타남
 - 의창구를 제외한 4개 행정구역은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예회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의창구는 문화체육센터, 문예회관, 미술관 등이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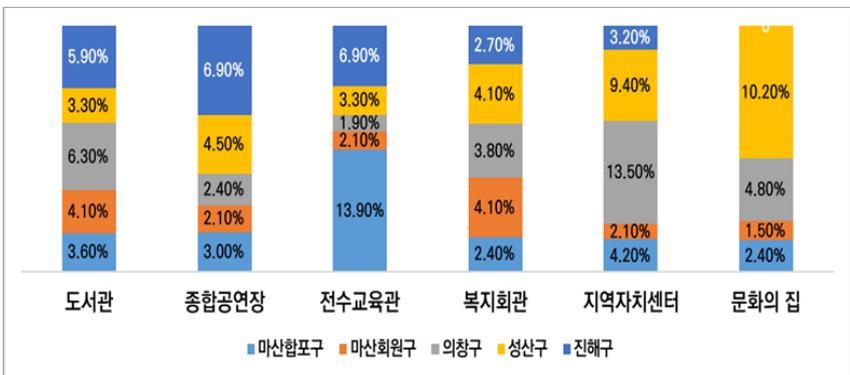
〈그림 3-36〉 행정구역별 가장 만족하는 문화시설



- 창원시민이 가장 불만족하는 문화시설 1위는 지역자치센터(6.8%)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는 전수교육관, 마산회원구는 도서관·복지회관, 의창구는 지역자치센터, 성산구는 문화의 집, 진해구는 종합공연장·전수교육관 등이 가장 불만족한 시설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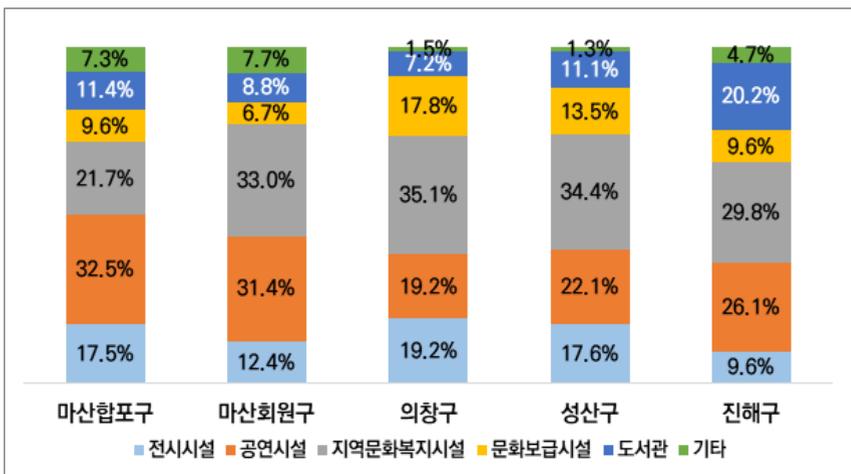
〈그림 3-37〉 행정구역별 가장 불만족하는 문화시설



(9) 부족한 문화시설

- 창원시민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시설은 지역문화복지 시설로 나타남
 - 부족한 문화시설 순위는 1위 지역문화복지시설(31.3%), 2위 공연 시설(25.8%), 3위 전시시설(15.4%), 4위 문화보급시설(11.7%), 5위 도서관(11.6%)순으로 나타남
- 5개 행정구역 중 마산합포구는 유일하게 공연시설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함
 - 마산합포구는 부족한 문화시설로 1위 공연시설, 2위 지역문화 복지시설, 3위 전시시설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진해구는 부족한 문화시설로 1위 지역문화복합시설, 2위 공연시설, 3위 도서관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8〉 행정구역별 부족한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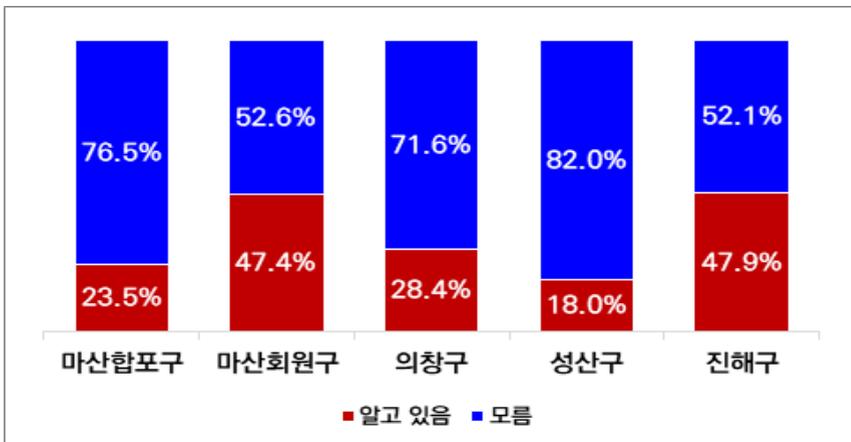


3) 유희공간 활용 의견 조사

(1) 유희공간 인지 여부

- 창원시 유희공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창원시민의 67.6%는 지역 내 유희공간(시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
 - 지역 내 유희공간(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유희공간 인지 여부는 진해구 거주 시민의 유희공간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성산구 거주 시민의 유희공간 인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진해구 시민의 47.9%는 지역 내 유희공간(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산구 시민의 18.0%는 유희공간(시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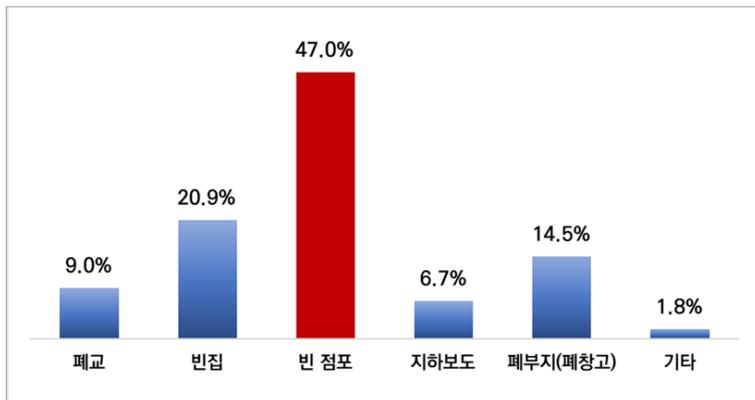
〈그림 3-39〉 행정구역별 유희공간 인지 여부



(2) 유희공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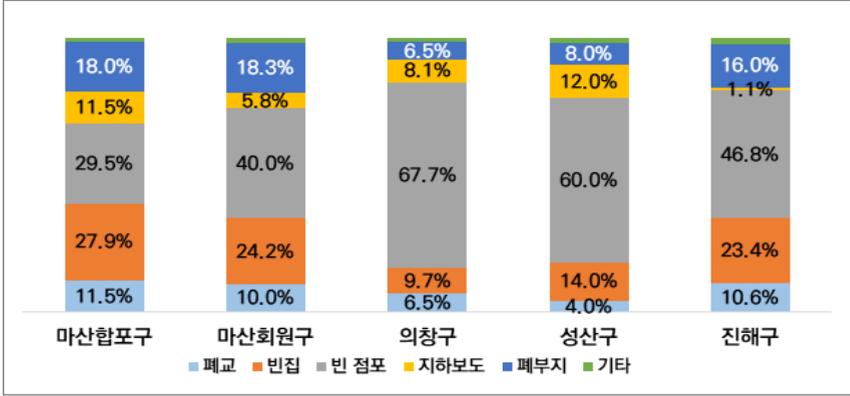
- 창원시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희공간은 빈점포(47.0%)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빈점포 47.0%, 빈집 20.9%, 폐부지(창고)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0〉 인지 유희공간 유형



- 행정구역별 인지하고 있는 유희공간 유형은 의창구와 성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하보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는 유희공간 유형으로 빈점포, 빈집, 폐부지(폐창고) 등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의창구 및 성산구는 유희공간 유형으로 빈점포, 빈집, 지하보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진해구는 유희공간 유형으로 빈점포, 빈집, 폐부지(폐창고)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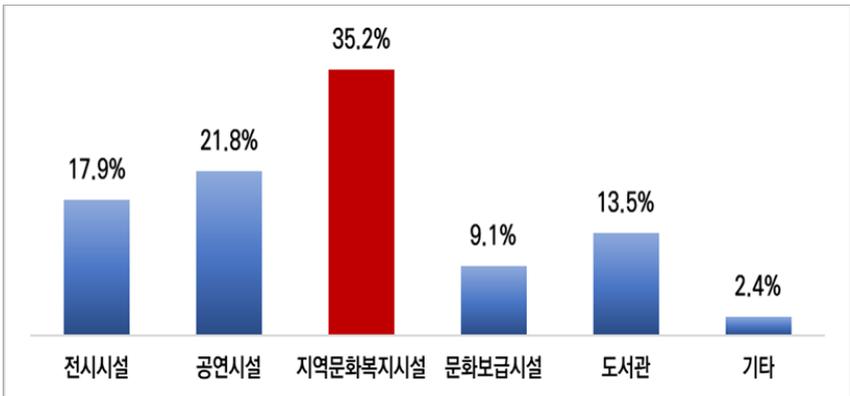
〈그림 3-41〉 행정구역별 인지 유휴공간 유형



(3) 유휴공간 활용 여부 및 문화시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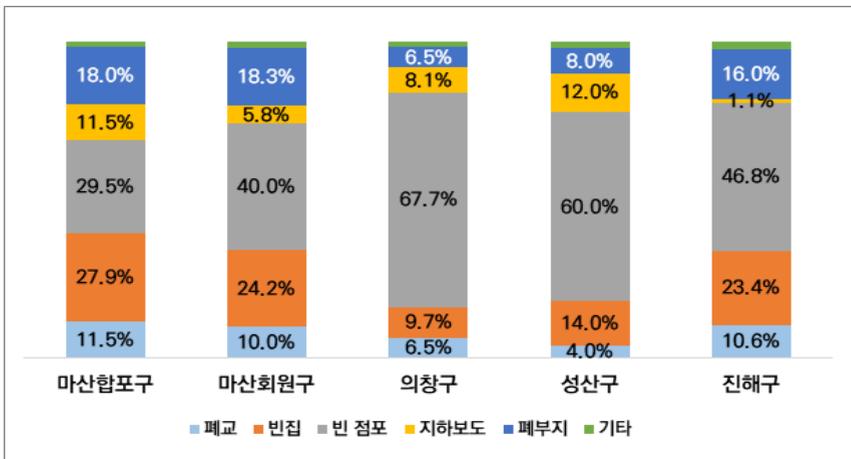
- 창원시민의 91.0%는 유휴공간(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데 찬성한다고 응답함
-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에 대한 여부는 찬성 91.0%, 반대 8.8%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음

〈그림 3-42〉 유휴공간 활용 문화시설 유형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창원시민이 가장 원하는 문화 시설은 지역문화복지시설로 나타남
 - 유휴시설 문화적 활용 유형은 1위 지역문화복지시설(35.2%), 2위 공연시설(21.8%), 3위 전시시설(17.9%)순으로 나타남
-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로 공연시설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창구 및 성산구 거주 시민들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로 전시시설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해구 거주 시민들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로 도서관을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3-43〉 행정구역별 유휴공간 활용 문화시설 유형



3.4 창원시 유휴공간 활용 시민의견 조사의 소결

-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시민은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문화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창원시민의 문화시설 인지도는 62.2%, 문화시설 이용률은 17.2% 수준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의창구, 반면, 인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진해구임
 - 전시시설 :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공연시설 :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 지역문화복지시설 :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 문화보급시설 : 성산구>의창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 도서관 :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표 3-39〉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인지도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전체
전시시설	63.6%	63.2%	78.2%	72.4%	47.6%	65.7%
공연시설	66.5%	69.6%	80.9%	78.4%	57.6%	71.3%
지역문화복지시설	53.2%	59.7%	62.2%	60.3%	50.1%	57.5%
문화보급시설	35.0%	44.5%	50.2%	51.2%	31.8%	43.4%
도서관	66.6%	75.0%	82.2%	80.0%	58.3%	73.2%
합계	57.0%	62.4%	70.7%	68.4%	49.1%	62.2%

-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창구 반면, 문화시설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진해구임
 - 전시시설 : 의창구>마산합포구>성산구>마산회원구>진해구
 - 공연시설 :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지역문화복지시설 : 의창구>성산구>진해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문화보급시설 :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 도서관 :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표 3-40〉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이용률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전체
전시시설	18.1%	8.0%	21.2%	17.0%	6.1%	14.3%
공연시설	24.5%	24.4%	31.9%	28.4%	12.8%	24.8%
지역문화복지시설	12.0%	9.8%	21.5%	16.8%	12.1%	14.7%
문화보급시설	6.7%	8.2%	14.6%	11.6%	2.3%	9.0%
도서관	21.7%	26.3%	32.0%	25.0%	10.2%	23.4%
합계	16.6%	15.3%	24.2%	19.8%	8.7%	17.2%

- 창원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1위는 도서관임
 - 행정구역별로는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 의창구 > 성산구 > 진해구 순으로 높음
 - 진해구 거주 시민은 문화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함
- 창원시민이 가장 만족하는 문화시설 1위는 문화체육시설임

- 의창구 · 성산구 · 진해구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시설은 문화체육 시설임
-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시설은 도서관임
- 창원시민이 가장 불만족하는 문화시설 1위는 지역자치센터임
 - 마산합포구 · 진해구 주민은 전수교육관 시설에 가장 불만족함
 - 반면, 마산회원구 주민은 도서관, 의창구 주민은 박물관, 성산구 주민은 문화의 집에 가장 불만족함
- 창원시민이 가장 원하는 문화시설 1위는 지역문화복지시설임
 - 의창구 · 성산구 주민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을 요구함
 -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주민은 소공연장, 종합공연장, 영화관 시설을 요구함
 - 진해구 주민은 도서관 시설을 요구함
- 창원시는 유휴공간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제4장

국내 주요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분석



1.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의 틀

-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유희공간을 활용한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에 소재한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유희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빈집, 빈점포, 폐부지, 폐공장, 지하보도 등 도시의 다양한 유희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관광자원으로서 명성을 얻은 경우는 매우 희소함
 - 문화시설의 경우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증대가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타 지역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됨
 - 즉,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구성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활용 가능한 유희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활용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함
-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은 유희공간의 유형, 문화적 활용 시설, 시설의 핵심 콘셉트, 개발 및 운영 주체 등 4가지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유희공간의 유형은 문화시설로 활용되기 이전에 본래의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던 시설물 유형을 의미하며, 사례분석에서는 폐교, 폐부지(폐공장, 폐건물), 빈점포, 지하보도 등을 조사함
 - 문화적 활용 시설은 최근 문화공간은 단일 기능이 아닌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문화공간 내 조성된 주요 시설을 조사함
 - 시설의 핵심 콘셉트 : 문화공간 내 시설 조성 시 적용된 콘셉트 또는 테마 등을 조사함
 - 개발 및 운영 주체 :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 조성 시 개발 주체 및 현재 운영 주체를 조사함
- 구체적으로 폐교는 공연시설 및 도서관 활용 사례, 폐부지(폐공장, 폐건물)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활용 사례, 빈점포는 공연 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활용 사례를 조사 및 분석
 - 창원시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활용 가능한 유희 공간과 창원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화시설 수요를 매칭하여 해당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함

2.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 내용

2.1 폐교 활용 문화시설

1) 폐교를 활용한 공연시설

- 폐교를 공연시설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는 강원도 화천군 시골 마을에 조성된 ‘예술텃밭’ 임
- 2010년 극단 ‘뛰다’는 15명의 단원과 가족이 함께 집단으로 이주 하였으며, 직접 폐교를 개보수하면서 극단 운영을 시작함
 - 현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 및 도전 활동을 추진 중임
- 예술텃밭 조성 이후 폐교는 작은 극장과 공장으로 변신하였고, 주부극단, 청소년 극단 등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함
 - 예술텃밭은 그림책 전시, 주민 프로그램 연극놀이터 이랑 등이 운영 중임

〈표 4-1〉 폐교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1

구분	내용	
시설명	화천 시골마을 예술텃밭	
위치	강원 화천군 화천읍노신로274 (화천초교신명분교)	
규모	부지 : 7,565㎡ / 건물 : 326.79㎡	
사업비	매입비 3억 9천만원, 조성비 5억	
주요시설	야외 공연장, 실내공연장, 창고 겸 제작소, 게스트하우스, 극장, 스튜디오 등	

사진출처 : <http://blog.daum.net/realtree99/443>

-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또 다른 사례는 ‘아라리 인형의 집’ 인형극 박물관임
 - 강원도 정선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아라리 인형의 집 박물관은 1998년 나전분교를 보수, 2002년 공연용 인형을 테마로한 인형극 박물관을 개관하고 각종 공연을 개최함
- 아라리 인형의 집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인 아리랑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공연 활동이 중심을 이룸
 - 지역 대표 축제인 정선아리랑제에 참가하여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초등학교 방문 공연, 지역 대학 동아리 워크숍, 인형극 정선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임
- 강원도 정선군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의지를 통해 문화공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함
 - 최초 인형극 공연장으로만 운영하였으나 정선군 매입 이후 인형제작실, 인형전시 등 문화공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표 4-2〉 폐교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2

구 분	내 용	
시설명	정선 아라리 인형의 집	
위 치	강원 정선군 북평면명주내길43-5 (북평초등학교 나전분교)	
규 모	부지 : 3,989㎡ / 건물 : 247㎡	
사업비	-	
주요시설	공연장, 박물관, 인형제작실	

사진출처 : https://www.gangwon.to/tour/gangwondo_trip

2)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 폐교를 활용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도서관을 운영함
- 구 윤산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영어체험 교육장 2개소와 영어도서관은 부산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스마트 영어교육을 실시함
-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영어체험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시민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추진함
 - (주)부산글로벌빌리지(위탁업체)에서 상황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여행프로그램, 영어권문화체험, 수학/과학교실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임
-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조성함
 - 부산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에서 공사비를 지원하여 320억원 규모의 대규모 건축 공사를 완료함

〈표 4-3〉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1

구 분	내 용	
시설명	부산글로벌빌리지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389-25 (윤산중학교)	
규 모	부지 : 20,901㎡ / 건물 : 15,713㎡	
사업비	부산시 320억원 + 부산교육청부지제공	
주요시설	도서관, 체험테마시설, 학습실, 강의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등	

사진출처 : <http://blog.daum.net/realtree99/443>

- 폐교를 이용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사례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에제르 평생교육원’ 임
- 에제르 평생교육원은 교육 및 문화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지동사랑회(현재 에제르)구성하여 폐교 인수 후 평생교육원으로 조성함
- 에제르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오픈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북카페, 도서관, 전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교육공간의 전문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예 등 강의실을 마련함
-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을 추진 중임
 - 새로운 직업교육 및 인식교육,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공동체 생활 및 문화·여가생활 공유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표 4-4〉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2

구 분	내 용
시설명	에제르 평생교육원
위 치	경북 김천시 아포읍 지리 376 (지동초등학교)
규 모	부지 : 13,843㎡ / 건물 : 1,489㎡
사업비	-
주요시설	북카페, 도서관, 전시관, 교육관 등



사진출처 : <http://m.kimcheon.co.kr/view.php?idx=37311>

2.2 폐부지(폐공장) 활용 문화시설

1) 폐공장을 활용한 공연시설

- 폐공장을 활용하여 문화시설로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 F1963”임
- 부산 F1963은 버려진 폐공장을 지자체(부산시)와 민간기업(고려제강)이 공동으로 조성한 민관 협력 사례임
 - 부산시 수영구와 고려제강은 폐쇄된 공장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연간 6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재탄생시킴
- 2016 부산비엔날레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 명소를 부상함
 - 공장 중심부 천장을 제고하여 공연장, 학술회의, 프리마켓 등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함
 - 프라하 맥주 양조시설을 옮겨온 펍바933과 공장 폐철을 재활용한 테라로사 카페는 이용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함

〈표 4-5〉 폐부지(폐공장)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구 분	내 용	
시설명	F1963	
위 치	부산수영구 망미2동 구락로123번길20(고려제강 공장)	
규 모	부지 : 22,279㎡ / 건물 : 10,650㎡	
사업비	162억원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카페등	

사진출처 : <https://froma.co.kr/198>

2) 폐공장을 활용한 전시시설

- 폐공장을 이용하여 전시시설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팔복예술공장’ 임
- 2018년 25년간 버려진 공장을 지역주민 휴식처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연간 11만명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함
- 본래 기능인 폐공장의 콘셉트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폐공장의 외형은 그대로 존치하고, 총 13명의 입주 작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 예술을 선도함
 - 또한, 예술공장 내 커피숍·카페 등에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함
- 팔복예술공장은 전주 관광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대변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함
 - 기존 전통한옥마을 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도시 이미지 변화, 전통한옥마을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대변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함

〈표 4-6〉 폐부지(폐공장)를 활용한 전시시설 사례

구분	내용	
시설명	팔복예술공장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구 썬전자, 쏘렉스 공장 건물)	
규모	부지 : 13,224㎡ / 건물 : 6,001㎡	
사업비	50억원	
주요시설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연구실등	

사진출처 : <https://www.i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656>

3) 폐공장을 활용한 도서관

- 폐공장(폐건물)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동해 ‘망상해뜰책뜰’ 임
 - 망상해뜰책뜰은 최초 동사무소 건물로 사용, 동사무소 이전 이후 고래박물관으로 운영되었으나 폐관 이후 방치된 것을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도서관으로 사용을 제안함
- 버려지고 방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조성,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주도함
 - 지역주민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도서관의 장서를 확보, 망상협동조합 결성 후 직접 운영 중임
- 주말 200명이 방문하는 지역문화공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임
 - 망상해뜰책뜰은 망상해수욕장 앞에 위치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성장 추진 중

〈표 4-7〉 폐공장을 활용한 도서관 사례

구분	내용	
시설명	동해 망상해뜰책뜰	
위치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6261 (구 동사무소, 고래박물관)	
규모	부지 : 2,563㎡ / 건물 : 539㎡	
사업비	8억원(국비 7억원, 시비 1억원)	
주요시설	도서관, 카페, 세미나실, 소공연장 등	

사진출처 :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656>

2.3 빈점포 활용 문화시설

1) 빈점포를 활용한 공연시설

- 빈점포를 활용하여 문화시설로 조성한 대표적 사례로는 경기도 시흥시 공단에 위치한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임
- 시화공구상가 상인들과 문화예술인의 콜라보를 통해 탄생한 시흥 문화발전소 창공은 20년간 방치된 목욕탕 공간을 문화복합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시흥시가 직접 운영 중임
- 목욕탕 콘셉트에 맞게 문화활동공간과 교육공간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임
 - 감성탕 :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북카페, 밴드실, 요가실, 전시실 등 조성
 - 이성탕 : 시제품 제작 및 전문가를 위한 공간으로 3D 프린팅, 사진촬영 등 조성

〈표 4-8〉 빈점포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구 분	내 용
시설명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위 치	경기 시흥시 공단 1대로 204 (목욕탕)
규 모	529㎡
사업비	-
주요시설	공연장, 연습장, 교육장, 전시실, 북카페 등



사진출처 : <https://blog.naver.com/newdeal4you/221770219286>

2) 빈점포를 활용한 도서관

- 빈점포를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조성한 사례는 경기도 성남시 지하상가 빈점포 도서관이 대표적임
 - 성남 빈점포 도서관은 빈점포를 고객과 상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바쁜 상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쇼핑에 지친 소비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중임
- 빈점포 도서관 조성 이후 지하상가 내 다양한 문화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이 생성됨
 - 상인들을 위한 무인 도서관을 시작으로 상인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함
 - 지하상가 내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고, 빈 셔터를 이용한 소망의 벽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함
 - 문화예술공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4-9〉 빈점포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구 분	내 용
시설명	성남 중앙지하상가 빈점포 도서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삼성대로 204-5(성남 중앙지하상가 빈점포)
규 모	-
사업비	-
주요시설	북카페



사진출처 : <https://blog.naver.com/smrf2012/221454623403>

3) 빈점포를 활용한 전시시설

- 침체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빈점포를 전시공간으로 조성한 “진주 별별 뮤지엄”
 - 코로나로 힘든 상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이 앞장서 빈점포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유도함
- 지하상가 내 점포와 점포 사이 숨겨진 전시관을 찾는 재미가 상가 이용 수요 증진을 유도함
 - 지하상가 내 빈점포 10개를 활용하여 트리아트·그림자공방·빛의 병커 등을 설치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포토존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조성함
- 전시공간에 도슨트(해설적 기능) 및 에듀케이터(교육적 기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함
-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불투명하지만 지하상가 활성화와 지역주민 문화향유 증대 등 윈윈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표 4-10〉 빈점포를 활용한 전시시설 사례

구 분	내 용	
시설명	진주 별별 뮤지엄	
위 치	경남 진주시 대안동21 (진주 중앙지하상가 빈점포)	
규 모	-	
사업비	-	
주요시설	트리아트, 그림자 공방, 이야기 캐슬 등	

사진출처 : <https://blog.naver.com/pearl286/222069632570>

2.4 지하보도 활용 문화시설

1) 지하보도를 활용한 공연시설

- 지하보도를 활용하여 공연시설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임
- 2017년 우범지대 지하보도를 진달래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연간 1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내 383개 동아리가 등록됨
 - 지자체 주도로 형성된 생활문화센터에 약 400여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함
- 인천 진달래 생활문화센터는 전시 및 공연공간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커뮤니티로 발전함
 - 지하보도의 벽면을 활용한 갤러리를 조성하였고, 지하공간 특성을 활용하여 악기 연습실, 간이 공연장 등을 조성함
 - 지역주민 중심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기획하고 공연하는 문화 커뮤니티가 형성됨

〈표 4-11〉 지하보도를 활용한 공연시설 사례

구분	내용
시설명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위치	인천 연수구 청학동507번지 청학중 앞(지하보도)
규모	493m ²
사업비	10억원
주요시설	전시장, 공연장, 연습장, 다목적실 등



사진출처 : http://www.rcda.or.kr/2020/newsletter/20200929/hotplace_01.asp

2.3 빈점포 활용 문화시설..... 2)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시시설

- 지하보도를 활용하여 전시시설로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임
 - 예술의 전당 건립 당시 유일한 보행통로였던 지하보도가 횡단보도 설치 후 유휴공간화되어 방치됨
 - 지역 전문가의 제안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서초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를 조성함
- 음악문화지구 예술의 전당, 악기거리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중심 지역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함
 -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는 시각예술전시기획 공모를 통해 만 45세 이하의 청년 작가 및 기획자를 선발함
 - 선발된 청년 작가 및 기획자는 연 10회 기획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과 청년예술가들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임
 - 예술의 전당과 악기거리 등 주변 지역에 소재한 주요 문화거점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중심지로 브랜드화를 추진 중임

〈표 4-12〉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시시설 사례

구 분	내 용	
시설명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95 (지하보도)	
규 모	415m ²	
사업비	10억원	
주요시설	전시장, 공연장, 연습장, 다목적실 등	

사진출처 : <http://seocho.newstool.co.kr/view.php?eid=7425&aid=7444>

3.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 분석 결과

-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분석,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 창원시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행정구역별 개발 가능한 유희공간(시설)과 시민 요구 문화시설을 매칭하여 사례조사 분석을 실시함
 - 폐교 : 공연시설, 도서관 사례 조사 및 분석
 - 폐부지(폐공장)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사례 조사 및 분석
 - 빈점포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소성이 요구됨
 - 유희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스토리, 주제 등)을 반영한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할 것임
 - 유희공간이 가진 스토리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임
- 둘째, 유희공간은 복합적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주요 이용계층은 지역주민, 문화예술가, 관광객 등 다양한 이용계층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전시기능, 공연기능, 교육기능, 체험기능, 쇼핑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 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문화예술전문가·관광객 등을 위한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 문화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문화 콘텐츠 생산, 유통, 확산, 재생산 등 순기능 구조가 구축되어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기획에서 조성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증대임
 - 문화시설의 1차적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보 될 때 지역의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점 문화공간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은 문화 공급 및 소비의 공간이 아닌 생산적·발전적 공간으로 조성이 요구됨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은 지역에 정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같은 생산적·발전적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할 것임

제5장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

1. 창원시 유희공간 종합분석

- 창원시 유희공간 종합분석은 3가지 분석을 종합하여 지역별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시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이용 요인 등을 제시함
 - 첫째,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창원시에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을 파악하는 것임
 - 둘째, 창원시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창원시 유희공간 우선 개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임
 - 셋째, 현황분석, 수용력분석, 시민의견조사를 종합하여 문화시설 개발 유형 및 결정 요인을 제시하는 것임

1.1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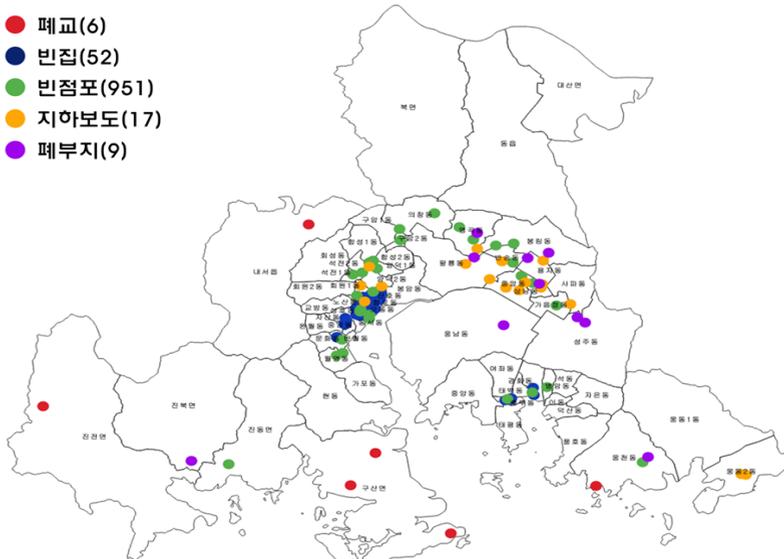
-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분석 결과 활용 가능한 시설은 총 1,035 개소이며,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 유형은 폐교, 빈집, 빈점포, 지하 보도, 폐부지 등으로 나타남

-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소재지는 1위 마산합포구(482개소), 2위 마산회원구(249개소), 3위 성산구(186개소), 4위 의창구(68개소), 5위 진해구(50개소) 순으로 나타남
-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유형은 1위 빈점포(951개소), 2위 빈집(52개소), 3위 지하보도(17개소), 4위 폐부지(9개소), 5위 폐교(6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5-1〉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현황

구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계
폐교	4	1	-	-	1	6
빈집	46	-	-	-	6	52
빈점포	430	245	58	178	40	951
지하보도	1	3	4	7	2	17
폐부지	1	-	6	1	1	9
계	482	249	68	186	50	1,035

〈그림 5-1〉 창원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분포도



1.2 창원시 유희공간 우선 개발 지역

- 창원시 유희공간 우선 개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 문화시설의 수용 범위를 분석함
 -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유형별로 분류(문화체육관광부 기준)하고, 각 유형별 수용 범위를 적용(반경 700m, 2km, 5km, 9km)하여 문화 소외지역을 도출함
- 창원시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 결과 유희공간 우선 개발 지역은 9개 동으로 나타남
 - 우선 개발 지역 : 북면, 동읍, 대산면,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용천동, 용동1동

〈표 5-2〉 창원시 유희공간 우선 개발 지역 현황

유희공간 유형	행정구역	절대 소외지역	상대소외지역
전시시설	마산지역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창원지역	-	북면
	진해지역	-	-
공연시설	마산지역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창원지역	대산면	북면, 동읍
	진해지역	용동1동, 용동2동	용천동
지역문화복지시설	마산지역	-	진동면
	창원지역	-	북면, 대산면
	진해지역	-	-
문화보급전수시설	마산지역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창원지역	-	북면, 대산면
	진해지역	용동1동	용천동, 용동2동
도서관	마산지역	-	진전면, 구산면
	창원지역	-	동읍, 대산면, 북면
	진해지역	-	-

1.3 창원시 유휴공간 활용 수요

- 창원시민의 문화시설 이용 결정 3대 요인은 접근성, 경제성, 일상성으로 나타남
 - 1위 가까운 거리(33.7%), 2위 무료이용(24.8%), 3위 일상적 문화 활동(20.1%) 순으로 나타남
- 창원시민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로 지역문화복지시설을 가장 많이 요구함
 - 유휴공간 활용 문화시설 수요 1위는 지역문화복지시설, 2위는 공연시설, 3위 전시시설, 4위 도서관, 5위 문화보급시설 순임
- 창원시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마산지역(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은 폐교·폐부지(공장)·빈점포 활용,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 가능한 공연시설 조성 필요
 - 창원지역은 도심지 내 지하보도·빈점포·폐부지(공장) 활용,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시설 조성 필요
 - 진해지역은(웅천동, 웅동1동)은 폐교·폐부지(공장)·빈점포 활용,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조성 필요

〈표 5-3〉 창원시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 종합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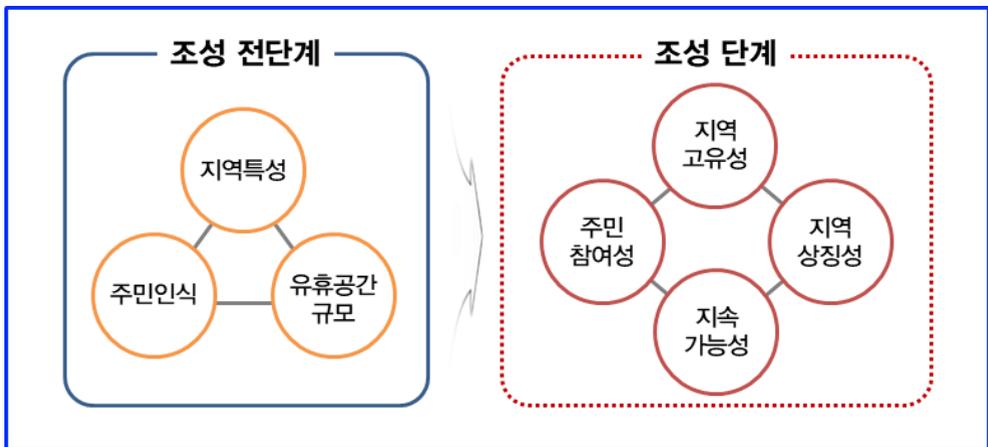
지역	유휴공간	시민 요구시설	이용요인
마산	폐교, 폐부지(공장), 빈점포	공연시설	가까운 거리
창원	지하보도, 빈점포, 폐부지(공장)	전시시설	일상 문화생활
진해	폐교, 폐부지(공장), 빈점포	도서관	무료 이용

2.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기본방향

-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기본방향은 크게 문화시설 조성 전단계와 조성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문화시설 조성 전단계는 유희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 되어야할 사항을 제시함
 - 문화시설 조성 단계는 실제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시함
- 창원시 유희공간 조성 전단계의 3대 요소는 지역특성, 유희공간 규모, 주민인식 등임
 - 지역특성은 유희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도심지역과 도시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 방법을 제시함
 - 유희공간 규모는 문화시설로서의 활용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문화시설의 기능을 선정함
 - 주민인식은 유희공간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유희 공간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개발 주체를 결정함
- 창원시 유희공간 조성 단계의 4대 요소는 지역 고유성, 지역 상징성, 지속가능성, 주민참여성 등임
 -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이야기와 색을 담을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차별화 및 특화를 추진하는 것임

- 지역 상징성은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이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이자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임
 - 지속 가능성은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임
 - 주민 참여성은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임
-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은 정립된 7대 요소를 단계별로 구성하고, 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각 단계별 주요 사항 및 검토 사항을 방안으로 제시함

〈그림 5-2〉 창원시 유희공간 활용 기본방향



3. 창원시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방안

3.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희공간 활용 방향 설정

- 창원시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희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검토함
 - 유희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은 인구, 산업, 교통, 문화, 기후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함
 - 유희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지정학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임
- 유희공간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도시의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자본 유출,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도시의 주요 기능이 이전하면서 발생한 도심공동화 현상 두 가지임
 - 즉, 유희공간이 도심지 내에 소재한다면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한다면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도심지역에 소재한 유희공간은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도시의 기능 이전으로 발생한 유희공간은 상대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유희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특징을 지님

- 이러한 유희공간은 원도심 지역의 침체 및 낙후를 지연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즉,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증대의 목적보다는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대표적으로 창원시는 마산지역의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점포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인 ‘창동 예술촌’을 조성함
- 창동예술촌은 문화적 요소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도심지역에 소재한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역시 필요할 것임

〈그림 5-3〉 창동예술촌 전경



출처 : <http://www.knnews.co.kr/>



출처 : <https://m.seoul.co.kr/>

- 반면, 외곽지역에 소재한 유희공간은 지역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 유출로 인해 발생한 유희공간은 상대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열악하며, 유희공간 조성 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징을 지님
 - 이러한 유희공간은 낙후된 지역 활성화 보다는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즉,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 방향은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 및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 결과 문화공간 소외지역은 주로 마산의 삼진지역, 창원의 동읍·북면·대산, 진해의 웅천 및 웅동지역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북 김천에 조성된 에제르 평생교육원을 들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임

3.2 유희공간의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활용 형태 선정

-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유희공간의 물리적 공간 규모임
 - 유희공간의 물리적 공간 규모는 개발 여부, 개발 형태, 개발 기능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 따라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유희공간은 빈집, 빈점포, 폐교, 폐부지(공장), 지하보도 등 그 형태가 다양하여 공간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공간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문화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유희공간의 규모가 작은 경우 단일 기능을 갖춘 단일문화시설로 조성하여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유희공간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전시,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공간에 대한 정체성 부재와 이용자 만족도 하락이 동반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전시시설의 경우 다른 문화시설과 달리 일정 빈 공간을 요구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공간일수록 단일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표적 사례로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빈점포 도서관과 진주 지하상가 별별 뮤지엄을 들 수 있으며, 두 시설 모두 도서관 또는 전시공간으로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됨

- 창원시 진해구 소사마을 김씨박물관 역시 작은 공간에 박물관 기능이 특화된 문화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림 5-4〉 진해구 소사마을 김씨박물관 전경



출처 : <https://leemsw.tistory.com/145>



출처 : <http://m.knnews.co.kr/>

- 반면, 유휴공간의 규모가 큰 경우 전시장, 공연장, 북카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로 조성 추진이 필요할 것임
 - 최근 문화시설은 이용자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합적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추세임
 - 복합문화공간은 개별 공간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문화공간의 매력성을 제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은 단순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님
- 유휴공간의 기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은 지역의 특성임
 -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형 유휴공간은 단일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임

- 반면,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형 유희공간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이 필요할 것임
- 창원시 유희공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유희공간은 도시 외곽에 소재함에 따라 폐교를 활용한 복합공연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폐교의 평균 건축면적은 915㎡(277PY), 평균 부지면적은 12,947㎡(3,923PY)으로 나타남
 - 폐교의 평균 건축면적은 적은 규모이지만 부지면적은 넓게 나타나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임
- 의창구와 성산구는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단일 기능을 갖춘 전시 시설 조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에 소재한 지하도의 평균 길이는 47m, 평균 폭은 8m로 나타나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376㎡(114PY)으로 산출됨
 - 창원시 의창구 및 성산구의 지하보도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지하 보도를 활용한 전시시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진해구는 폐교를 이용하여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3.3 유희공간 인식 수준에 따른 개발 주체 결정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유희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유희공간은 방치된 공간이지만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가진 공간
이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낮음
 - 기존의 국내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 문화시설 조성 단계에서는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에 따라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지역주민 주도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흥시, 동해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단법인 혹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함
 - 반면, 시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경우 국가 공모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으로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 이후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 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희공간이 소재한 위치에 따라 개발 주체를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은 공동체 의식 및 유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지역주민 주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반면, 도심지에 거주하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 및 유대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 지자체 주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주민주도형은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성 후 운영까지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관이 필요하며, 관주도형은 조성 이후 운영단계에서 문화예술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필요함
- 창원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이전 단계에서는 시민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유희공간에 대한 창원시민 의견 조사 결과 시민의 67.6%는 지역 내 유희공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
 -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유희공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창원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 참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창원시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임

3.4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시설 조성

- 최근 중앙정부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별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 중임
 -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많은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종료 후 문화시설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
 - 문화시설이 중단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중단 이외에도 유사한 문화시설 조성으로 인해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발생함
- 지자체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지역이 보유한 고유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지역이 보유한 고유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 지역 명칭, 구전 이야기, 지역 특산품 등을 기반으로 문화시설의 콘셉트(concept)를 구성함

- 동일한 유형의 문화시설도 지역이 보유한 콘셉트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 문화시설에서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 더불어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이 담긴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발굴한 이후 시각적·감성적·행동적 표현을 통해 스토리(주제)를 텔링(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시각적·감성적·행동적 표현은 문화시설의 외관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스토리와 관련된 콘텐츠의 색상, 형상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 가능할 것임
- 창원시 유희공간이 소재한 마산합포구 구산면은 지형적 모습이 거북이의 배를 닮아서 ‘구복’이라고 불리며, 이를 문화시설의 고유성으로 선정하여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산합포구의 유희공간이 폐교를 활용하여 공연장 등 복합문화 공간 조성 시 건물의 외관은 거북이등의 육각형 모형으로 조성 가능할 것임
 - 야외 공연장 조성 시 무대와 객석의 전체적인 형상을 거북이가 배를 보이고 누워 있는 형상으로 조성하여 타 문화시설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임

3.5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으로 지역의 상징적 가치 제고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목적을 두고 추진됨
 - 첫째,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를 증대하는 것임
 - 둘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발생한 원도심 지역의 침체를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임
 - 셋째, 도시 전반에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임
- 창원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은 단순히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은 사람과 자원을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한 거점이자 확산의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이 요구됨
- 즉,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상징적 공간 개념으로 설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최근 문화공간은 단순히 문화시설 내 공간 개념에서 탈피하여 문화거리, 문화벨트 등 도시 전반에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태로 확장됨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역시 그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시설로서의 의미 부여가 필요할 것임
-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과거 6.25 전쟁 속에서도 공연과 영화가 지속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간직함
 - 마산지역은 일제강점기-해방-6.25전쟁까지 마산극장, 제일극장, 시민극장, 부림극장, 자유극장, 동보극장 등 한국의 극장사를 대변하는 공연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지님
- 마산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공연도시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북면, 구산면 일원에 소재한 유휴공간(폐교)을 영화, 연극,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가칭) 마산시네마’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산시네마는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의 거점으로서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과거 공연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등을 상영하여 도심지 거주 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창원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임

3.6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은 물리적 공간 개발과 함께 조성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물리적 공간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조성 이후 지속적 기능 유지를 위해선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해야함
-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이용자 계층을 다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문화시설은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설정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가능함
- 창원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은 도심형과 외곽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산의 삼진지역, 창원의 동대북(동읍·대산면·북면)지역, 진해의 웅천·웅동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의 연령이 높고, 육체적 활동이 많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낮은 특징을 지님
 -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도시의 외곽형 문화시설은 새로운 경험과 적정 수준의 지적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예를 들면 도시 외곽형은 건강 프로그램 중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택의 집수리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임

〈그림 5-5〉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례



출처 : <http://www.hwtimes.co.kr/6818>



출처 : <http://www.sjpeople.kr/8754>

- 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형 유휴공간의 문화시설은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고, 지적 활동이 많으며 복고, 향수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예를 들면 도심형은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건강프로그램 또는 바르게 걷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6〉 바른자세 및 바른 걷기 프로그램 사례



출처 : <http://sisa-news.com>



출처 : <http://www.sjpeople.kr/8754>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은 유기적인 형태의 프로그램 변화를 통해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문화시설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장소성)을 확보함
- 창원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유기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동호회 조성 및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음악, 미술, 조각,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의 동호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연습장 무료 대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음악동호회가 구성되면 마산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종합공연장을 제공하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동호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 개최가 가능할 것임
-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문화 소비를 넘어 문화 생산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 창원시는 수공예 혹은 수작업이 요구되는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기업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역주민들은 제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선순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임

3.7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민 참여성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문화 소비자이자 제2의 문화생산자임
 - 최근 문화소비자(문화시설 이용자)는 단순히 문화시설 및 문화 콘텐츠 소비를 넘어 문화를 전파 및 확산하고, 재창조하는 제2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함
 - 이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문화콘텐츠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소비하면서 발생함
 - 결국 문화소비자의 역할 확대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지역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창원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주민참여는 4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첫째, 참여를 위한 인식의 전환단계로서 유휴공간에 대한 개념과 거주 지역의 문화시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마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짐
 - 둘째, 지도자 형성단계로서 지역 대표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주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됨
 - 셋째, 참여 및 성과획득 단계로서 문화시설 조성 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성과 획득을 기대함

- 넷째, 운영 및 관리단계로서 문화시설 조성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 더불어 창원시는 기존의 주민참여 방식 중 반상회, 공청회 등 제도적 참여 방식을 지양하고, 간담회, 워크숍, 주민협의회 등 비제도적 참여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유희공간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답사하여 문화시설이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주민 참여 확대로 인해 문화시설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함
 - 지역주민이 문화소비-유통-재생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변화함
 -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특유의 결속력으로 체계화·전문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함
 - 대표적인 사례는 경북 김천시의 에제르 평생교육원과 강원 동해시의 망상해뜰책뜰로서 두 곳 모두 지역주민 중심으로 사단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 중임
- 창원시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자생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국내에서도 폐 공장, 빈집, 지하보도 등 지역의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재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창원시는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면서 산업단지 내 빈 공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속적 도시 확장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됨
 - 이에 창원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마산 창동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현재 선도지역, 도활지역, 새뜰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 창원시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창원시 전체 유희공간에 대한 활용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소재 유희공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도출하며,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함
- 창원시 유희공간 분포와 지역별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현황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은 진전면, 구산면, 내서읍, 웅천동 등 도심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가능
 - 빈집을 활용한 문화공간(시설) 조성은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가능
 - 빈점포 및 지하보도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공간(시설)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 폐부지는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상대적으로 창원시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화시설의 수용 범위를 분석한 결과 문화소외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전시시설 소외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북면 등으로 나타남

- 공연시설 소외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대산면, 북면, 동읍, 응동1동, 응동2동, 응천동 등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복지시설 소외지역은 진동면, 북면, 대산면으로 나타남
 - 문화보급전수시설 소외지역은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 북면, 대산면, 응동1동, 응천동, 응동2동으로 나타남
 - 도서관 소외지역은 진전면, 구산면, 동읍, 대산면, 북면 등으로 나타남
- 창원시 유휴공간 활용 및 창원시민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창원시민은 상대적으로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이용률은 낮은 수준임
 - 지역 내 소재하는 유휴공간에 대해 창원시민의 67.6%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평소 유휴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
 -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창원시민의 91.0%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은 적극 찬성함
 - 창원시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문화시설 1위는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나타남
- 창원시 유휴공간 현황분석, 문화시설 수용력 분석, 창원시민 의견 분석을 종합한 결과 지역별 활용 가능 유휴공간 및 시민 요구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마산지역(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구산면)은 폐교·폐부지(공장)·빈점포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연시설 조성이 필요함
 - 창원지역은 도심지 내 지하보도·빈점포·폐부지(공장)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시설 조성이 필요함
 - 진해지역(웅천동, 웅동1동)은 폐교, 폐부지(공장), 빈점포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조성이 필요함
- 창원시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7대 요인을 제시하였고, 문화시설 조성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희공간 활용 방향을 설정함
 - 둘째, 유희공간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활용 형태를 선정함
 - 셋째, 유희공간 인식 수준에 따른 개발 주체를 결정함
 - 넷째,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시설을 조성함
 - 다섯째,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으로 지역의 상징적 가치를 제고함
 - 여섯째,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일곱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결정하는 주민 참여성을 제고함

2. 정책제언

- 창원시는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대하고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첫째, 지역의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지역에 분포한 빈포, 폐교, 폐부지(폐공장), 지하보도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및 문화향유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가 요구됨
 - 경제적 성장과 문화향유 욕구 증대는 정비례 관계이며, 불균형 발생 시 삶의 질 하락이 발생함
 -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및 문화향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유휴공간의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함
 -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시설을 계획·조성·운영까지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 또한 중요한 요인임

- 창원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기획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주민·전문가·창원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임

- 창원시는 체계적 유희공간 관리,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대하고, 나아가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1. 김 준, 「문화공간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2015.
2. 김동한 외, 「국토 유희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2015.
3. 김연진,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1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4. 김정우, 「지하유희공간의 문화예술적 활용방안」, 영남대학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2013.
5. 라도삼, 「문화환경의 창출과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17집, 2005.
6.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0.
7. 문화체육관광부,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2009.
8.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7.
9. 백나영·민찬홍,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디자인포럼21』 제5집,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02.
10. 용인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기준 및 효율적 확충 계획 수립용역」, 2017.
11. 이덕진, 「유희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4.
12. 이종민 외, 「유희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13. 이혜진, 「도시속의 도시·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여행」, 제일기획, 기업리포트, 2008.

14. 임유경 외,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15. 진광배, 「춘천시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시설의 구성유형과 입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9.
16. 추용욱, 「강원도 유희공간의 재생과 가치 제고」, 정책메모, 강원발전연구원, 2015.
17. 추용욱, 「문화환경으로서 유희공간 활용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0.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방안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19. 황동호, 「국내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